Entertainment p/18
베테랑 가수 티켓 파워 이름값

metro®
메트로 2014년 7월 4일 금요일 제3007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2

홍명보 유임 약일까? 독일까?

북핵 겨냥 '확고한 반대' 천명

한중 정상회담 성명 한단계 발전…공동선언서 대일 메시지는 생략

원-위안화 직거래 구축·FTA 조기타결 등 경제분야 포괄적 협의

박근혜 대통령은 3일 한국을 첫 국빈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을 겨냥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한중 정상의 공동성명에 사실상 북핵을 겨냥한 '확고한 반대'라는 입장이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6월 두 정상이 채택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의 '심각한 위협'에서 경고수준을 한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두 정상의 5번째 만남이 된 이번 방한은 시 주석의 첫 특정국가 단독 방문으로, 북한이나 일본 방문보다 먼저 이뤄진 것으로 세계 각국이 이번 회담 결과에 주목했다.

두 정상은 북핵문제를 외에도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타결, 인적·문화적 교류의 확대 등을 의제로 단독 및 확대회담을 잇따라 가졌다.

회담 결과 두 정상은 상호신뢰에 기반을 둔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양국관계의 미래상으로 ▲공동 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동반자 ▲아시아의 발전을 추진하는 동반자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라는 이른바 '동심원 확장형' 4대 동반자 개념을 제시했다.

◆ 드레스덴 통일 구상 등 포괄적 지지

청와대는 "지난해 6월 한중 공동성명에 비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 표명, 6자회담 '재개 조건' 마련과 '의미있는' 대화재개 노력 필요성에 대한 의견일치, 드레스덴 통일 구상에 대한 포괄적 지지 확보 등의 진일보한 내용이 이번 성명에 담겼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공동성명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검증을 통한 훼손시도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등 일본 아베 신조 정부의 도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담지 않았다.

다만 정상회담 후 채택된 부속서에서 양측은 관련 연구기관간 위안부 문제관련 자료의 공동연구와 복사, 상호기증 등에서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포함, '위안부' 문제를 공식 언급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진전을 긍정평가하고 연말까지 협상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원-위안화 직거래 체제구축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2016년까지 양국간 인적교류 1000만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증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방안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2015년을 '중국 방문의 해', 2016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각각 지정했다. 양국 정부간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도 체결하기로 했다.

◆ 시 주석 "세월호 사고 다시 한번 위로"

한편 시 주석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이고 서로에게 좋은 동반자와 친구다"며 "이번 기회를 빌려 저는 다시 한번 세월호 사고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 역시 중국어를 사용해 농담을 전하고 공식환영식에 중국인이 선호하는 빨간색 재킷을 입는 등 곳곳에서 시 주석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손 흔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1박2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오후 청와대 대정원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의장단을 사열한 뒤 은평초등학교 어린이 환영단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의리축구 시즌2' 홍명보 감독 유임

내년 1월 AFC 아시안컵까지

홍명보(45)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내년 1월 열리는 2015 AFC 아시안컵까지 지휘봉을 잡는다.

대한축구협회는 3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감독의 유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허정무 협회 부회장은 "월드컵 부진이 홍 감독 개인의 사퇴로 매듭지어지는 것은 최선의 해결책이 아니다"며 "홍 감독을 계속 신뢰하고 지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감독에 대한 유임 조치는 정몽규 회장과 부회장들이 모인 집행부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허 부회장은 "홍 감독이 벨기에와의 본선 조별리그 3차전이 끝나자 사의를 밝혔다"며 "그러나 우리는 사퇴가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경험을 거울 삼아 아시안컵에서 대표팀을 잘 이끌어달라고 홍 감독을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축구협회 내부에서는 홍 감독이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주역이었고, 2009년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청소년 대표팀을 8강,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시 기회를 주자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홍 감독의 유임에 대한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월드컵 본선 결과는 차치하더라도 팀 구성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선수 선발, 전술 실패 등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양성운기자 ysw@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5번째 잠수함 '윤봉길함' 진수 3일 오전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해군의 다섯번째 잠수함인 '윤봉길함'(1800t급)의 진수식이 열렸다.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윤봉길함은 대함전, 대잠전, 공격기뢰 부설 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2016년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임 병장 수색중 3번 이상 조우

거짓 답변후 도주 체포 못해…119헬기 3시간27분 후 도착

군 당국이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뒤 도주한 임(22) 병장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세 차례 이상 임 병장과 접촉했으나 체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 관계자는 3일 "임 병장을 검거하기 전까지 주간 수색 및 야간 차단작전 병력이 임 병장과 최소한 세 차례 이상 접촉했다"며 "첫 번째는 지난달 22일 오전 11시16분, 두 번째는 같은 날 오전 11시56분, 세 번째는 지난달 23일 새벽 2시13분께 각각 수색 중이던 병력과 접촉했다"고 밝혔다.

그는 "접촉 간에 임 병장은 '훈련병이다', '피아식별 띠를 가지러 가는 길이다', '암구호를 잊어버렸다' 등으로 거짓 답변을 한 후 도주했다"며 "세 번째 접촉 때는 작전병력이 도주하는 임 병장을 향해 3발을 사격하고 추격했으나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 병장 수색작전 중 팔 관통상을 입은 수색팀 소대장은 오인사격으로 다친 것으로 결론이 났다.

또 중앙119 응급헬기는 사건 발생 3시간 27분 뒤에야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오후 8시10분에 사건이 발생하자 22사단은 8시49분께 의무사령부에 군 응급환자지원센터에 응급헬기 지원을 요청했다"며 "이후 군 응급지원센터는 9시19분에 중앙119에 응급헬기 지원을 요청했고 9시35분 중앙119로부터 지원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중앙119 응급헬기는 22사단 사령부에 11시37분에 도착했고 환자는 11시40분에 사단 사령부에 도착했다"며 "중앙119 응급헬기는 지원 가능 통보 이후 1시간이 지난 10시35분에 이륙했는데 이는 비행금지선(NFL) 지역에 대한 비행승인과 공역통제, 계기비행 협조 등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꽃 선물받는 펑리위안 여사 한국을 첫 국빈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가 3일 오후 서울 창덕궁을 방문해 화동으로부터 꽃을 선물받고 있다. /뉴시스

'소화불량'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기자 수첩

백 아 란 <경제산업부 기자>

지난달 26일 열렸던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수식어가 붙을 때부터 걱정이 되던 일이었다.

겉으로는 엄청나 보인다. 하지만 앞서 지난 4월 열린 하나금융지주와 관련한 제재심의 결과만 해도 5시간이 넘게 걸렸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이날 하루만에 15개 금융사 220여명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모두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의 제재심의는 주요 진술인의 소명이 길어지는 바람에 KB금융과 카드3사 등 대부분의 핵심 안건에 대한 심의가 뒤로 미뤄졌다.

금감원은 충분한 소명을 듣고 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하지만 200여명의 임직원 생사와 금융권 전반을 흔들만한 위력을 지닌 징계 문제를 한꺼번에 무리하게 몰아넣었던 탓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법률자문관, 교수, 변호사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들이 모든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기엔 봐야할 자료도 많고 시간 또한 턱없이 부족했을 것이다.

게다가 이날 금감원을 찾은 KB, 국민, SC은행과 롯데카드 등 금융사 전현직 CEO들 가운데 일부는 소명 진술조차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결국 너무 많은 사안을 한꺼번에 다루려다 소화불량에 걸린 꼴이 되고 만 셈이다.

물론 제재심의위원회는 잘못된 사안에 대해 어떤 압력이나 설득에도 법과 원칙을 따져 확실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안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진행 또한 필수불가결하다.

몰아넣기식 징계에 앞서 장기화에 따른 경영공백과 업무의 효율성 역시 고려해야 할 때다.

새누리 당권레이스 스타트

서청원·김무성 '2강' 속 9명 후보 등록

새누리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7·14 전당대회가 3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막을 올렸다. 후보들은 이날 후보등록과 함께 전당대회 당일인 14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 레이스를 벌인다.

친박(친박근혜) 원로그룹의 서청원 의원과 한때 친박 좌장이었다가 현재 비주류 대표격으로 통하는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이인제·홍문종·김태호·김영우·김을동·김상민의원과 박창달 전 의원 등 총 9명이 후보등록을 한다.

대표최고위원을 포함해 총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할 이번 전당대회의 당권경쟁 판세는 대체로 '2강-3중-4약'으로 분석된다. 서 의원과 김 의원이 유력 당권주자로 팽팽한 대결을 벌이고 있고, 6선의 이인제 의원과 사무총장을 지낸 친박 홍문종 의원, 경남지사를 지낸 김태호 의원이 중간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김을동 의원은 득표에 상관없이 '여성 몫'으로 지도부에 입성을 예약한 상태다.

이번 전당대회는 전체 20만명 안팎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1인 2표를 행사하는 방식에 따라 최다 득표자를 대표최고위원으로, 나머지 4명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한다.

70%가 반영되는 현장 투표 대상자는 책임당원이 15만명 가량으로 가장 많다. 추첨에 의한 일반 당원은 3만명, 전당대회 대의원은 1만명, 인터넷을 통한 40세 이하 청년 선거인단은 1만명 등이다. 나머지 30%는 일반 여론조사로 반영한다.

/김민준기자

뉴스&뉴스

북 민간인 1명 백령도서 귀순 요청

●북한 민간인으로 추정되는 1명이 3일 목선을 타고 백령도로 넘어와 귀순을 요청했다.

군 소식통은 "오늘 새벽 귀순자는 귀순 의사를 밝히면서 신분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군은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다.

"요청없이 日자위대 한반도 활동 불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과 관련해 "우리의 요청이 없이는 한반도 내에서 자위대 활동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자위대 활동의 지리적 한계는 우리 작전 구역 밖에 한정한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 동작을 기동민 전략공천

●새정치민주연합은 7·30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새정치연합은 3일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신한 정치신인을 통해 개혁공천을 이루고 7·30 재보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서울 강동구가 65세 이상 노인, 5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면 접종이 가능하다. 소아대상은 전국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무료접종 할 수 있다.

'주민화합 소통 행사' 열어

서울 도봉구에서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주민행사가 개최됐다.

최근 도봉동 동아에코빌아파트에서는 주민자치와 주민사랑방 개관식이, 쌍문동 한양 2·3·4차아파트에서는 주민 화합 탁구대회가 열렸다.

아토피 힐링캠프 모집

서울 동대문구는 '아토피가족힐링캠프'를 마련하고 9일부터 참가 가족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경기도 가평군 다일 자연치유센터에서 진행하는 이번 캠프는 9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1박 2일로 운영된다.

軍 신호등 체계 분류…사고 관리

GOP 신형 방탄복 지급

국방부가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부대를 '그린-옐로우-레드' 등 신호등 체계로 분류해 관리한다.

국방부는 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방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인격 존중의 병영문화 조성 목적으로 사고 징후 감지를 위한 부대진단 신호등체계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내년 전반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체계는 중대와 소대 단위로 시행된다. 정상적인 부대는 그린(초록색)으로 분류해 관리하다가 관심병사나 신병이 많이 들어오면 '옐로우'(황색)로 분류한다. 특히 사고가 날 확률이 높으면 '레드'(적색)로 등급을 올리는 개념이다.

또 총기 난사 사건 후속 대책으로 내년 1월까지 GOP에 근무하는 장병 전원에 신형 방탄복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이번 사건에서 일부 장병이 방탄복을 착용하지 않아 희생이 늘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외에도 10월까지 집단 따돌림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인성검사 도구를 개발해 보호관심병사의 관리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민준기자

오늘 우리는 여고생 제19회 여성주간을 맞이해 3일 오후 서울 신당동 중구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나를 찾다, 꿈찾기&교복 촬영' 행사에 참가한 주부들이 학창시절의 추억이 담긴 교복을 입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가압류 직전 미술품 매각

이혜경 동양 부회장 조사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이혜경(62) 동양그룹 부회장이 법원의 눈을 피해 미술품을 빼돌려 서미갤러리에 팔아치운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동양그룹 창업주의 딸이자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최근 법원의 가압류 절차 직전 자신이 소유한 고가의 미술품을 갤러리 서미 홍송원(61·여) 대표를 통해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홍 대표 사이의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지난달 이 부회장의 미술품 보관 창고와 갤러리 서미를 압수수색했다.

이 부회장이 법원의 재산처분을 피해 미술품을 미리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윤다혜기자 ydh@

"무료로 CF 만들어드려요"

'tbs 희망광고 사연 공모전'이 다음달 10일까지 20명의 세 번째 주인공들을 찾는다.

이번 공모전은 tbs의 특성을 반영한 재능기부형식의 시민응원 프로젝트로 영상광고(CF) 제작과 방송까지 지원한다.

개인 뿐 아니라 중소기업·영세소상공인·전통시장상인·사회적 기업·협동조합·여성창업자 등 영상홍보물을 필요로 하는 대한민국 국민·단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선정된 개인 및 단체(20팀)는 CF를 무료로 제공받게 되며, 제작된 CF는 케이블TV·IPTV와 지하철TV, tbs 앱 등 다양한 tbs 매체를 통해 방송된다.

김형식 '철피아' 비리도 연루

살인교사 혐의만 적용 검찰 송치…금품수수 별도 수사

살인청부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철로공사 납품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미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는 김 의원이 레일체결장치 수입·납품업체 AVT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AVT 이모 대표의 진술과 관련계좌 추적을 토대로 금품수수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구체적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었다.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지난달 24일 그가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관련 수사를 보류한 상태다.

사건을 송치받는 대로 김 의원을 상대로 금품수수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김 의원의 살인교사 혐의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하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1~4호선 궤도개량 공사를 하면서 AVT 제품에 특화된 이른바 'B2S' 공법을 적용해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AVT는 서울메트로의 레일진동 저감장치 개발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침통한 표정의 김형식 수천억원대 자산을 지닌 재력가를 살해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3일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김 의원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강서경찰서는 우선 살인교사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애초 경찰은 김 의원이 피해자 송모(67)씨로부터 향응을 받았다고 인정한 만큼 살인교사 혐의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할지 검토했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뇌물죄 부분은 검찰 송치 이후 필요에 따라 추가로 수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기초부터 상급까지 프랑스어 완전 통달

Q 방송통신대 불어불문학과는 어떻게 개설되었나.

A 1982년 출발한 불어불문학과는 일상생활 속 자유로운 프랑스어 구사는 물론 프랑스 문학, 프랑스 문화, 프랑스어권 연구를 통해 유럽 및 세계로 진출할 교양인을 양성하기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등록금은 35만원 내외이며, 다양한 장학금이 있습니다.

Q 불어불문학과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나.

A 불어불문학과에서는 기초에서 상급 과정에 이르는 프랑스어 교육을 바탕으로 중세부터 현대까지 이르는 주요 프랑스문학, 문화 등에 대한 이론들도 함께 학습하게 됩니다. 더불어 프랑스 원어민 교수들이 지도하는 프랑스어 캠프를 통해 깊이 있는 문화 체험을 진행함으로써 한국-프랑스간 문화 및 사상적 교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졸업 후에 진로는 어떻게 되나.

A 구체적이고 생생한 프랑스어를 교육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출 수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어문학 분야 전문가·문예 비평가·전문번역가·문화산업의 실무자 등으로 활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교 대학원의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상급학년에서 연계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문의 02-3668-4580) /윤다혜기자

내 적성을 찾아라! 방송통신대 Q&A ⑦ 불어불문학과

한국방송통신대 불어불문학과 스터디그룹 학생들이 함께 나들이에 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방송대 제공

방송통신대 신속담 7-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공부길도
한 걸음부터

: 방송통신대 공부가 어렵다지만
원서를 내는 순간 시작된다는 뜻

6. 9~7. 16 신·편입생 모집!

치매노인 보호센터 우수사례 발표·워크숍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3일 서울 수하동 페럼타워에서 '경증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우수사례 발표회·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주간보호센터 운영지원사업 우수사례 발표와 함께 동두천시노인복지관을 비롯한 9개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유석쟁 생보재단 전무(앞줄 가운데)와 수상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생보재단 제공

"우유주머니에 열쇠 넣지 마세요"

키 찾아 빈집 턴 20대 구속

서울 도봉경찰서는 서울 시내 주택가를 돌며 수백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김모(26)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3월부터 6월까지 성북구·강북구·도봉구 일대 주택가에서 10회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900만원어치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주택가 계단에 놓인 신발장이나 우유주머니 등에 숨겨 놓은 열쇠를 찾아내 문을 따고 들어가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지난달 "집에 들어왔던 도둑이 도망치고 있다"는 한 피해자의 112 신고를 접수한 이후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50여 대를 분석해 김씨를 붙잡았다.

2012년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1년 2개월간 복역한 김씨는 출소 후 음식점에서 일했다. 그러나 전과 사실을 알게 된 주변의 시선 때문에 일을 그만둔 후 다시 도둑질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특히 플래시가 켜지는 휴대전화 녹화 기능을 사용하다 범행 장면이 그대로 녹화되는 어수룩한 모습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훔친 금품은 PC방 등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훔친 귀금속과 TV 등을 사들인 금은방 업주 신모(58)씨 등 4명도 붙잡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서울시 재건축정비구역 8곳 해제

서울시가 독산동 등 재건축 정비구역 8곳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금천구 독산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승인을 취소했고, 강서구 등촌동 567번지와 강동구 둔촌동 70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은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노원구 공릉동 684-6, 공릉동 503-4번지 일대는 정비계획 수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신내동 278번지, 344번지, 372번지 일대는 택지개발사업 등 다른 사업이 시행되면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 가운데 공릉동 503-4번지 일대에서는 소유주와 세입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시작된다. /김민준기자

'교비 횡령' 김민성 SAC 이사장 소환

공금 수십억원 횡령 혐의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를 둘러싼 횡령·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는 3일 이 학교 김민성(55) 이사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이사장은 2003년 SAC 설립 이후 10여 년간 등록금 및 국비 지원금 등 학교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2009년 교육 당국으로부터 학점은행 학사학위 교육기관으로 인가받고 학과와 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횡령한 돈을 로비자금으로 썼는지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평생교육진흥원과 최운실(58) 전 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조만간 최 전 원장도 소환할 방침이다.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는 2012년 수업을 단축 운영하고 교수와 강사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부실운영으로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윤다혜기자

"대한민국 물리치료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양질의 물리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1. 물리치료사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의료민영화 반대와 의사 사익중심의 대한민국의료복지구조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물리치료사는 의사와 보건복지부 상호간의 협의로만 진행되는 잘못된 의료정책결정구조와 수가결정체계를 개선토록하는데 의료기사 단체를 대표하여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 실질적 물리치료 공급 주체인 물리치료사와 수요주체인 국민의 참여가 철저하게 배제된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만의 물리치료에 대한 협상은 올바른 협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물리치료와 관련된 보건의료정책과 수가결정 체계에서 우리는 국민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모두가 참여하기를 요구하며 이와 관련된 공청회를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내세운 의정협의회가 최근 물리치료사 1인 1일 30인 치료기준을 없애고 한 부위에서 두 부위 이상으로 치료 기준으로의 변경을 강행하려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물리치료사1인이 치료하는 인원은 30인 만이 아닌 누락된 산업재해 입원 환자와 여러 인원을 동시에 치료할 수 밖에 없는 열악한 진료환경을 고려한다면 이미 치료사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수준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 의정협의회가 바라는 안으로의 변경은 국가의 면허를 받은 물리치료사를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내몰고 숙련된 물리치료사들의 일자리를 값 싼 인력으로 대체시켜 국민들에게는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의사의 사욕만 채우게 합니다.

2. 물리치료사는 의사 만능주의 즉, 의사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이고 구태의연한 의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사들은 의료기사들이 제시하는 의뢰와 처방 요구를 국민건강과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포장한 채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기만행위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만 합니다.

- 세계물리치료사연맹 107개 가맹국이 대한민국의 물리치료사의 입지에 대한 우려와 금번 의정협의회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 물리치료 진료로 인한 부작용은 의사의 오진 및 수술에 의한 의료사고보다 현저하게 낮은 안전한 의료기술이며 이미 통계 및 각종 연구자료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사진료 연구자료 : 의사의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는 28% (연간 사망사고는 10만명)
미국 국립의료데이터 연구자료 : 물리치료사 과실에 인한 의료사고 0.2% (연간 사망사고는 약 0명)

3. 물리치료사의 사명 : 물리치료사들은 의사들이 꺼리는 의료사각지대와 산업현장, 그리고 국가재난 사태 발생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민을 섬기기위해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 본의 아니게 법률상으로 묶여 의사가 없으면 물리치료를 할 수 없는 의료사각지대인 농어촌/ 격오지/ 군 등에서 물리치료사들은 우리의 소임을 다하기를 희망하며 국가재난사태 발생 시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들의 부름에 응하겠습니다.

- 금번 세월호 사태 시 최초 재난의료재원단에 물리치료사는 배제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리치료사들은 국민의 요구와 부름에 벌률적 처벌을 각오하고 실종자 유가족과 함께하였으며 계속되는 호응 속에 군경 잠수사 치료까지 확대되어 물리치료사가 재난의료지원단의 일원으로 당당히 활동하게 되었고 국민의 치료사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 대한민국 물리치료는 1949년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Thelma B. Maw (한국명, 모우숙) 여사가 한국에 파송되어 세브란스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서구식 물리치료를 일반인에게 제공하여 6.25 사변을 기점으로 65여년의 장구한 역사와 함께 비약적인 발전을 거쳐 오늘날에는 3년제 전문학사에서 4년제 학사 이어 많은 의료재활분야 석 · 박사 등 고급전문 인력의 배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면허된 인원만 현재 5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재활 전문가인 대한민국 물리치료사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국민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metro global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Russia

**бурге пошили
с кондиционером**

metro France

Un 14-Juillet très classique

'혁명기념일' 어떤 행사 준비했나

프랑스의 최대 국경일인 '혁명기념일(7월 14일)'에 파리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기념일 밤엔 파리 에펠탑 앞 샹드마르스에서 클래식 공연이 열린다. 여기엔 약 50만 시민이 자리를 함께 할 예정. 올해 행사의 콘셉트는 '전쟁과 평화'다. 공연 관계자는 "혁명기념일 행사는 대중적인 코드로 짜여졌다. 지난해엔 300만명이 생중계를 보았고 총 50만명이 샹드마르스에 왔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metro Brazil

**Banco Central e
previsão de infla**

Relatório. Projeção para o IPCA neste ano subiu de 6,1% para 6,4%. Probabilidade de estourar teto da meta aumentou para 46%

내년 공공요금 인상률 5.5%로

브라질 중앙은행이 올해와 2015년의 인플레이션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은행은 소비자 물가지수는 6.4% 상승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기존의 6.1%에 비해 0.3%P 높은 수치로 정부 목표치인 6.5%에 거의 도달한 것이다. 2015년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도 기존의 5.1%에서 5.5%로 수정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연료비와 전기세, 버스비 등이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metro Peru

**La Huaca Pucllana
tendrá nuevo museo**

우아카 푸크야나 '새 보금자리' 마련

페루 리마의 우아카 푸크야나 유적지가 '새 보금자리'를 갖게 됐다.

우아카 푸크야나는 진흙과 볏짚으로 만든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신전이다. 잉카 이전 나스카 문명이 꽃폈던 기원후 400~700년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라플로레스 지역에 자리한 이곳은 그동안 관광객의 역사 탐방지로 인기를 끌어왔다. 발굴 30주년을 맞이하여 지역 당국은 현재의 작은 기념관 대신 대규모 박물관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미라플로레스의 문화 관광 담당자 크리시아 말라가는 "이곳에 현재의 건물보다 더 크고 그럴듯한 박물관을 만들 예정"이라면서 "이 유적은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설 전시실은 물론이고 특별 전시실도 만들어 페루의 고대 문화를 널리 알릴 계획"이라면서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공간도 마련된다"고 덧붙였다.

이 곳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중앙정부에 맞선 지역 행정의 승리 사례이기 때문이다. 문화적 가치가 높은 유적은 보통 중앙정부의 엄격한 관리를 받지만 우아카 푸크야나는 지역 당국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다. 페루 문화부가 주기적으로 감독 활동을 벌이지만 이 곳의 운영 관리 비용은 대부분 방문객이 내는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이런 노력으로미라플로레스 지역은 시민 단체로부터 꾸준히 '모범 행정 사례'로 선정돼 왔다.

또한 이 지역은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반 기업체와 연대하는 유산 보호 활동도 기획한다. 중앙 정부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을 기반으로 현장에 맞는 정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펼치겠다는 의지다. /사브리나 로드리게스 기자

정리=조선미기자

알아서 온도 조절 '스마트 재킷'

버튼 누르면 30초 만에 가열…15도 넘으면 기능 멈춰…출시 '호평'

러시아에서 날씨에 따라 온도를 자동 조절하는 스마트 재킷이 나왔다.

스마트 재킷 개발자 키릴 하류타는 "겨울에 입는 오리털 점퍼를 입으면 뒤뚱거리는 펭귄이 되는 기분"이라며 "오리털 점퍼를 대신할 수 있는 제품을 연구하다가 '똑똑한 재킷'을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류타는 "온도 조절 시스템과 액정이 장착된 스마트 재킷을 개발하는데 1년 이상 걸렸다"며 "소매 끝에 달린 액정을 통해 모두 일곱 단계의 온도 조절 및 온도 설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980년대 후반에 출시된 영화 백 투 더 퓨쳐에서 스마트 재킷의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그 동안 투자자를 찾느라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결국 꿈을 실현해 기쁘다"고 덧붙였다.

스마트 재킷의 원리는 자동차 히터의 작동 원리와 유사하다. 버튼을 누르면 30초 만에 가열이 되고 한 번 충전 후 최대 1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류타는 "스마트 재킷은 자신이 원하는 온도를 직접 설정할 수도 있다"며 "예전에 이와 유사한 제품이 미국에서 개발된 적은 있지만 지금처럼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재킷 착용자가 더운 곳에 들어가거나 가열 온도가 15도를 넘게 되면 스마트 재킷은 스스로 가열 기능을 멈춘다"며 "이런 온도 조절 기능은 겨울이 추운 러시아에서 꼭 필요한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스마트 재킷은 등산, 캠핑, 낚시 등 야외활동이나 실외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하류타는 "스마트 재킷의 장점이 많은 만큼 시장 반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스마트 재킷 붐이 일어날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나노 기술 등 스마트 재킷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지 않지만 점점 나아질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투자와 발명을 통해 똑소리나는 스마트 재킷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스뱌토슬라프 타라센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market index <3일>

코스피 2010.97 (-4.31)

코스닥 550.68 (+1.65)

금리(국고채 3년) 2.60 (+0.02)

환율(원·달러) 1008.50 (+1.00)

뉴스&뉴스

삼성, 안드로이드 복합기

●삼성전자가 프린팅 업계 최초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의 신제품을 국내에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3일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스마트 복합기 출시' 행사를 열고 기업용 복합기 '멀티X프레스 X4300 시리즈'를 포함한 총 3종의 신제품을 세계 최초로 국내에 출시했다.

이날 선보인 삼성 스마트 복합기 '멀티X프레스 X4300 시리즈'와 'K4350 시리즈', 'M5370 시리즈'는 모두 10.1인치 풀 터치 컬러 LCD 패널과 함께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삼성 스마트 UX 센터'라는 차세대 사용자경험(UX)을 적용했다. /이재영기자

금값 14주만에 최고치

●금값이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발언 등으로 14주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3일(한국시각) 국제 금 시장에서 8월 인도분 금은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전일대비 0.3% 오른 온스당 1326.60달러에 거래됐다.

금값 상승은 이라크 내전 등의 국제분쟁 불안감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저금리 기조 유지 발언 등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지상파 UHD 방송' 상용화 '힘겨루기'

방송協 "주파수 확보용 대기업 횡포" VS 이통사 "이익 위한 떼쓰기"

issue&view
지상파 UHD 방송 표준안 부결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상용화를 놓고 통신업계와 지상파간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3일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국내 방송통신 기술 표준을 정하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총회에서 34건의 표준 후보안 중 유일하게 지상파 UHD 방송 표준안만 부결됐다.

이를 놓고 지상파 방송사들의 협의체인 한국방송협회는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통3사가 자신들의 통신 서비스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상파 방송 표준에 대해 합리적 논의없이 무조건 반대했다"며 "이는 주파수 확보 야욕과 사욕을 위해 국민의 시청권을 희생하고 무료보편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사 죽이기 의도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TTA의 의결권은 회비에 비례해 투표권한이 있어 이통3사가 과반수에 가까운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지상파의 UHD 도입이 최소 1년 이상 늦어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총회에서 지상파 UHD 표준안을 부결시킨 데에는 700MHz 대역 주파수의 불안정성으로 재난방송하기에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국가재난망이 700MHz 대역 주파수에 할당될 가능성도 이번 지상파 UHD 표준안 부결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한국방송협회는 "이번 기술표준안이 채택됐다면 국민들이 내년부터는 UHD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다"면서 "이번 TTA 총회에서 보여준 이통사의 행태는 시청자 이익은 외면하고 통신재벌들의 사적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측은 지상파가 상황에 따라 자신들의 입장만 주장하며 이기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월드컵 방송을 위해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업계에 추가 재송신료를 요구할 때는 '갑'의 지위에서 시청자 혜택을 빼앗더니 자신들이 불리해지니 말이 또 바뀌고 있다"며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떼쓰기만 일삼고 있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월드컵 기간 지상파는 유료방송 사업자와 추가 재송신료 협상이 난항을 빚자 N스크린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통3사와 케이블의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는 월드컵 방송을 시청할 수 없었다.

현재 700MHz 대역의 주파수 할당은 UHD 방송용 주파수로 써야 한다는 지상파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트래픽 문제 해결을 위해 통신용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이통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벌써 1년6개월 이상 결론을 못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상파 UHD방송이 상용화되려면 송출방식 등에 대한 표준이 정해진 후 정부에서 기술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이후 주파수를 할당받아 상용 서비스에 들어가게 된다.

블랑팡, 여성 시계 라인 선보여 시계브랜드 블랑팡이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더클래스 청담에서 다양한 여성 시계 라인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공기업 신규채용은 남성 전용?

여성보다 3배나 많아

남녀고용평등법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이 지난해 채용한 신규직원 10명 중 8명은 남성으로 나타났다.

3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제외)의 '2013년 신규 채용 인원'을 분석한 결과, 남성이 77.3%(3125명)를 차지했다. 이는 여성(917명)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이다. 특히 지난해(75%)보다도 남성 신규 채용 비율이 상승했다.

한국조폐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여수광양항만공사, 대한석탄공사는 신규채용 100%를 남성으로만 채웠다. 한국도로공사(87.2%), 한국남부발전(86.6%), 한국석유공사(84.8%), 해양환경관리공단(84.5%), 한국남동발전(84.4%), 한국중부발전(83.1%) 등도 남성 채용이 압도적이었다.

반면 여성 채용이 많은 공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76.5%), 한국관광공사(68.8%),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53.7%)에 불과했다.

한편 지난해 공기업의 신규 채용 규모는 총 4042명으로 전년도(4270명)보다 5.3% 줄었다.

신입사원 채용을 늘린 공기업이 66.7%로 줄인 기업(33.3%)보다 많았으나 규모를 늘린 곳은 조금만 늘리고, 줄인 곳은 확 줄여 전체 공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규모가 준 것이다.

채용을 늘린 기업은 전년보다 평균 35명을 더 뽑은 반면, 줄인 기업은 평균 92명을 덜 뽑았다. /이국명기자 kmlee@

휴대폰 충전기 리콜

일부 휴대전화 충전기는 부품 결함으로 감전이나 화재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552개 가정용 생활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휴대전화 충전기 19개, 유아동복 3개 등 29개 제품에 대해 회수(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들 휴대전화 충전기는 전류 퓨즈·변압장치 등 주요 부품이 인증 이후에 바뀌고, 절연거리가 짧아 감전 또는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표원은 인증 이후, 주요 부품을 바꿔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리콜 명령과 인증 취소 이외에 형사처벌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고칠 계획이다.

일부 아동복의 단추, 인조가죽벨트 등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납이 기준치보다 최대 40배,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26배 초과 검출됐다. 작은 장식용 단추가 입에 들어가면 질식 위험이 있는 유아복도 있었다.

아동용 2단 침대(2개 제품)의 경우 침대 상단과 하단이 분리돼 어린이가 다칠 우려도 있었다. 또 침대 회색코팅 부분에서 기준치의 9배를 넘는 납이, 사다리걸이에서 기준치를 328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

유아용 삼륜차(2개 제품)는 달리다가 넘어질 가능성이 크거나 안장 부위에 기준치의 157배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함유하고 있었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제조·수입·판매사업자는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모두 거둬들이고 이미 팔린 제품은 교환 또는 수리해줘야 한다. /세종시=유주영기자 boa@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인왕산이 보이는 도심속 최상의 전망!!
서울의 중심 부암동 로자벨하우스
즉시입주 가능
26형 소형(59m²)
• 산책로, 등산로 근접
• 최상의 위치
– 광화문 10분거리, 내부순환로인접, 신분당선 예정
• 최고의 학군
– 경복고, 상명사대부속초, 세검정초
– 상명, 국민, 연대 고대 버스 한번통학
• 최고의 전망
– 인왕산이 한폭의 그림같은 전망
분양문의 02) 391-8001

운전중 교통상해사망까지 보장하는 보험 –

생명보험이에요? 운전자보험이에요?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하면 얼마나 보장하나요?

운전중 교통상해사망시
3억원 일시금 지급
(특약 가입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치게 되면 얼마나 보장하나요?

자동차 부상치료비
14등급(**5만원**)~1등급(**400만원**)**지급**
(특약 가입시)

매년마다 보험료가 계속 오르지는 않나요?

갱신·할증없이
월 11,990원
(20년 만기 20년 납, 월납, 자가용운전자 기준)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운전자종합보험 1404

● 보험료 예시

[20년만기 20년납, 월납, 자가용운전자기준, 단위 : 원]

구분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험료					
				30세남	30세여	40세남	40세여	50세남	50세여
보통약관	교통상해후유장해 (3~100%)(보통약관)	교통상해사고로 3~100%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의 3~100% 지급	1,000만원	102	71	102	71	102	71
특별약관	운전중 교통상해사망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사망시 일시금으로 보험가입금액 지급	30,000만원	4,350	2,190	4,350	2,190	4,350	2,190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만원	554	704	554	704	554	704
	자동차부상치료비 II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별 5만 ~ 400만원 지급	400만원	1,656	734	1,656	734	1,656	734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자가용자동차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피해자 사망, 피해자 중상해, 중대법규위반사고)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	3,000만원	2,275	2,274	2,275	2,274	2,275	2,274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실손)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구속 또는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으로 부담한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500만원	117	117	117	117	117	117
	벌금(실손)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2,000만원	293	293	293	293	293	293
보장보험료 합계				9,347	6,383	9,347	6,383	9,347	6,383
적립보험료 합계				2,643	5,607	2,643	5,607	2,643	5,607
납입보험료 합계				11,990	11,990	11,990	11,990	11,990	11,990

예시보험료는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벌금(실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실손) 특별약관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비례보상 및 보험금 지급내용은 중요한 부분이오니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자비용담보는 음주,무면허 운전중 사고나 뺑소니, 영업용/경기용 차량 운전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6종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 6종건설기계라 하더라도 작업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6종건설기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를 말합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표

[20년만기, 20년납, 상해1급, 남자 40세, 자가용운전자, 월납11,990원, 단위 : 원, %]

경과연수	납입보험료	예상 해지환급금(률)					
		최저보증이율		표준이율		표준이율 × 1.2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143,880	–	0.0%	–	0.0%	–	0.0%
3년	431,640	45,230	10.5%	47,250	10.9%	47,450	11.0%
5년	719,400	100,310	13.9%	106,040	14.7%	106,630	14.8%
7년	1,007,160	156,990	15.6%	168,550	16.7%	169,750	16.9%
10년	1,438,800	246,050	17.1%	271,290	18.9%	273,970	19.0%
16년	2,302,080	436,460	19.0%	511,380	22.2%	519,690	22.6%
20년	2,887,600	573,050	19.9%	701,170	24.4%	715,780	24.9%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위 예상해지(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를 해당이율로 부리, 적립한 것으로 향후 이 계약의 공시이율, 계약내용변경,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 예상해지(만기)환급금 및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1.5%), 「표준이율(3.5%)와 이 계약의 공시이율 중 작은이율」 및 「표준이율×1.2와 이 계약의 공시이율 중 작은이율」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보장성공시이율1304(월변동금리, 2014년 04월 현재 3.7%)입니다. • 실제 해지 및 만기시에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립부분 부리이율인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304)을 적용하여 산출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5%)하므로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실제 환급금 및 환급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지환급금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위 예상해지환급률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기되었기에 해지환급률에 납입보험료를 곱한 금액과 기재된 환급금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080-249-7000

• 계약자는 청약을 한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철회가능하며 계약 청약 이후 보험약관 미전달, 청약 미녹취 및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답변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담보 등 비례보상 담보의 경우 이전에 다른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4-0614호(2014.3.31)〉

"안정·수익성 둘 다 노린다"

글로벌 전환사채 펀드 '대안 떠올라'

미국 중앙은행(Fed)의 출구전략 등을 앞두고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채권과 주식의 특징을 모두 갖춘 글로벌 전환사채(CB) 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 펀드는 주가 하락기에는 채권으로 운용해 안정적으로 채권이자를 챙기고 주가 상승기에는 주식으로 전환해 추가 수익을 노리거나 프리미엄을 붙여 매도가능한 전환사채 특성에 착안한 금융상품이다.

3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운용되는 설정액 10억원 이상의 전환사채 펀드는 총 11개다.

이 중에서 최근 석 달새 새로 설정된 상품이 절반(5개)에 육박했다.

최근 높아진 경기 불확실성에 중위험·중수익을 좇는 투자자들이 전환사채 펀드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들 상품의 수익률은 양호한 편이다.

설정된 지 1~3년이 된 기존 6개 상품의 올해 상반기 수익률은 평균 4.9%로 집계됐다.

성과가 가장 좋은 상품은 'JP모간글로벌전환사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UA'로 연초 이후 5.08% 올랐다.

이어 '도이치DWS글로벌전환사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상품들이 일제히 5%가량의 수익을 냈다.

두 펀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기업이 발행한 채권으로 구성돼 선진국 증시에 투자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JP모간글로벌전환사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은 펀드 내 주식 투자비중을 40~60%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시장 전망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를 조절한다.

'도이치DWS글로벌전환사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은 지난 2004년 설정된 'DWS 전환사채펀드'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다.

모 펀드인 DWS 전환사채펀드는 전 세계 134개 전환사채 종목에 분산투자하며 운용 규모는 총 2조원 가량이다.

국내 자산운용사로서는 KB자산운용이 유일하게 관련 상품을 올해 초 출시했다.

'KB롬바드오디에글로벌전환사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A클래스'는 최근 3개월 수익률이 1.71%로 집계됐다.

이 상품은 스위스 롬바드오디에자산운용의 글로벌 전환사채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상품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중위험·중수익 투자전략으로 전환사채 펀드에 관심을 둘 만하다고 입을 모았다.

고창범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 위험자산의 기대수익도 떨어지면서 새로운 투자 대안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며 "안정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상품 가운데 글로벌 전환사채 펀드는 변동성을 낮추고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이마트, '쿨 언더웨어 대전' 이마트는 3일부터 일주일간 쿨소재의 언더웨어 250만점을 비롯해 50여개 브랜드 언더웨어를 최대 70%까지 할인하는 '쿨 언더웨어 대전'을 진행한다. /이마트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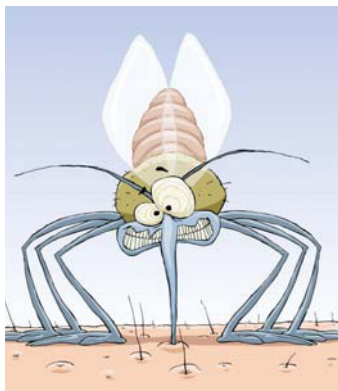
여름철 모기, 쉽게 없애는 방법

짠순이 주부 경제학

여름철이면 기승을 부리는 모기. '앵앵~' 거리며 여름 밤잠을 설치게 하는 공포의 대상이다. 물론 살충제를 뿌리면 어떻게든 잡힌다. 하지만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살충제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손쉽게 모기를 퇴치하는 방법은 없을까.

여름철 왕성한 땀으로 인한 냄새는 모기를 자극하는 주범이다. 모기를 피하려면 발을 자주 통풍해 주고 잠들기 전에는 샤워를 해 몸을 청결하게유지하는 것이 좋다. 씻은 후에는 향이 자극적인 스킨이나 비누, 향수 등의 사용을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다. 야외 활동 후에는 반드시 몸을 털어준 뒤 집에 들어가야 한다. 의외로 사람의 몸을 타고 들어오는 모기가 많다고 한다.

모기의 유충인 장구벌레는 고인 물에 서식한다. 이 때문에 화장실이나 싱크대에 남은 물기는 수시로 닦아주고, 꽃병의 물도 자주 갈아주는 것이 좋다. 아래향, 구문초, 제라늄 등 모기가 싫어하는 식물이나 계피가루 등을 사용하면 모기를 피할 수 있다.

모기는 색맹이다. 하지만 파장을 통해 약간의 색상을 구분하는 탓에 강렬하고, 어두운 색상을 좋아한다. 따라서 외출 시에는 흰색, 파스텔 컬러와 같은 밝은 색상의 옷을 입으면 좋다. 이는 모기가 싫어하는 컬러일 뿐만 아니라 모기가 접근하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향이 강한 '허브'를 키워도 효과적이다. 모기는 향이 강한 허브를 아주 싫어한다. 허브 중에서도 시나몬, 페퍼민트, 라벤더 등이 좋다. 작은 화분으로 구성된 허브 하나가 전·후방 4~5미터 정도는 커버해준다.

선풍기를 이용하는 것도 모기 퇴치에 유용하다. 모기는 몸체 길이가 비슷한 파리에 비해 몸무게가 가볍고 비행속도가 느린데다 긴 날개와 다리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받기 쉽다. 선풍기를 미풍으로만 틀어도 모기가 1m 가까이 접근하기 어렵고, 강풍으로 틀면 2m 밖까지 쫓아낼 수도 있다. 또 선풍기 바람이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나 체취를 분산시켜 모기가 목표물을 정하는 것을 방해하는 효과도 있다.

/김민지기자 minji@

전세난 시대… 분양전환 임대주택 '눈길'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하반기 분양 예정 물량

단지명	총 가구수	전용 면적(㎡)	분양 시기(월)	분양
경기 구리갈매 A2	1444	51~59	7	LH
충북 충주 안림1	344	59~84	7	
경기 의정부민락2 A1	371	51~59	9	
경기 부천옥길 B1	913	74~84	10	
경기 용인 역북 우남퍼스트빌	914	67~84	8	우남건설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 B3	848	미정	12	이지건설

–공급내역 및 일정은 건설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분양전환 임대아파트가 전세난에 지친 무주택자들에게 새로운 주거 유형으로 각광받고 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란 입주 후 5~10년 동안 임대로 살다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분양전환 당시 계약자의 사정이 여의치 않거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분양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초기에 목돈이 들지 않고, 장기간 거주가 가능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특히 보증금이 주변보다 낮을 뿐 아니라, 임대료 인상률 역시 연 5% 이내로 제한돼 계약자의 부담이 적은 편이다.

월세로 공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매월 내야 하는 임대료 부담조차 줄여주기 위해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단지들도 있다.

세금 혜택도 많은 편이다. 분양전환 이전까지 취득세는 물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 부담이 없다. 또 분양 후 바로 되팔더라도 임대기간이 거주기간으로 인정돼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는다.

예전에는 임대아파트라는 인식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수요자들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인식도 많이 개선된 상태다. 무엇보다 당장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금전적이나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면서도, 전세난에 지친 실속형 세입자들이 많이 찾고 있다.

올 4월 강원도 춘천에서 공급된 10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춘천 호반베르디움 에코'는 최고 4.72대1의 경쟁률로 순위 내 마감됐다. 같은 달 세종시에서 선보인 '한양수자인 와이즈시티'는 선착순 분양에서 4000여명의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반기에도 알짜 입지에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가 속속 공급된다. 이달 LH가 경기도 구리갈매보금자리지구 A2블록과 충북 충주시 안림지구 1블록에서 각각 1444가구, 344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9월과 10월 연달아 경기도 의정부 민락2지구 A1블록과 부천 옥길지구 B1블록에서 371가구, 913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우남건설은 8월 경기도 용인시 역북동에서 '우남퍼스트빌' 914가구를 분양한다. 월세가 아닌 전세형 분양전환 주택인 점이 특징이다. 전용면적 67~84㎡로 구성됐다. 이지건설도 12월 시흥시 배곧신도시 B3블록에서 848가구 공급 계획을 잡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LH 주도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가 분양됐지만 최근에는 민간건설사들도 뛰어 들면서 평면·마감재 등이 분양아파트와 다를 바 없다"며 "주택 매매에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들이 늘면서 주거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르노삼성 "품격높은 디젤세단 선보인다"

뛰어난 연비 자랑 'SM5 D' 공개… 2천만원대에 2가지 모델

르노삼성자동차는 3일 디젤세단 SM5 D를 출시, 고객 인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자동차 제공

르노삼성자동차(대표 프랑수아 프로보)가 3일 경기도 기흥중앙연구소에서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디젤세단 'SM5 D'를 공개했다.

SM5 D는 'Drive More(뛰어난 연비로 더 많이 탈수 있는)' 'Demonstrated Techno(뛰어난 기술력으로)' 'Differentiated Diesel(디젤세단의 차별화 선언)'의 의미를 담고 있다. 기존 모델인 SM5에 뛰어난 연비, 르노의 디젤 기술력, 가격대비 효용성을 추가한 모델이다.

SM5 D는 최근 국내시장에서 수입·국산 브랜드의 지속적인 디젤세단 출시와 연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며 관심을 모았다.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사전계약에서는 1500여대 이상의 사전 계약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SM5 D는 르노의 1.5 dCi 디젤엔진과 독일 게트락사의 듀얼클러치 트랜스미션을 적용해 복합 16.5km/ℓ 연비를 나타낸다. 도심 연비는 15.1km/ℓ, 고속도로 연비는 18.7km/ℓ다. 최고출력은 110마력이고 최대토크는 24.5kg이다. 모델은 SM5 D 2580만원, SM5 D 스페셜 2695만원의 2가지 트림으로 출시됐다.

SM5 D에 장착된 1.5 dCi 엔진은 연비 및 CO_2 배기가스 저감효과가 좋고 NVH 또한 향상시킨 엔진이라는 게 르노삼성 측의 설명이다. 이 엔진은 해외 브랜드에 1100만대 이상 공급하고 있으며, 벤츠·닛산·르노 등의 26개 차종에 적용중이다. 여기에 벤츠·BMW·볼보·페라리 등의 브랜드에 적용된 독일 게트락의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파워 시프트 DCT)으로 파워트레인 조합을 완성했다.

박동훈 영업본부장은 "수입브랜드는 이미 제품의 60% 이상이 디젤세단으로 팔리고 있으며, 디젤 세단이 없는 브랜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국내 브랜드에서는 그간 제대로 된 디젤 세단이 없어 고객에게 외면받았다. 이제 르노삼성이 SM5 D를 통해 제대로 된 디젤 세단을 제공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운사이징은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이 똑같이 추진하고 있는 명제 중 하나"라며 "르노삼성이 SM5 TCE, SM5 D를 통해 국내에 본격적인 다운사이징 제품을 선보인 것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르노삼성자동차는 SM5 D의 출시로 파워트레인의 다변화를 꾀해 다양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군을 갖췄다.

르노삼성측은 △하루 주행거리가 많지 않고, 안락한 승차감과 풍부한 편의사양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SM5 플래티넘 △다이내믹 파워풀 드라이빙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SM5 TCE △하루 주행거리가 40km 이상으로 뛰어난 연비와 적은 유지비를 고민하는 고객들에게는 SM5 D 등이 어울린다고 설명했다.

SM5 D는 5년간 운행 시 경쟁사 가솔린 2.0 모델보다는 약 600만~700만원까지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다. LPG 모델에 비해서는 약 200여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LPG 차량보다 연비, 토크 등에서 유리한 디젤 차량은 향후 시내주행비율이 높고, 주행거리가 많은 택시고객까지도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아빠의 마음 담은 'All New 카니발'

새로운 한국 대표 미니밴… 론칭 광고도 '화제'

기아자동차 올뉴카니발이 9년만에 돌아왔다. 올뉴카니발은 세계 최초로 4열 팝업 싱킹 시트가 탑재돼 실용성을 늘렸다. 특히 스마트 테일게이트와 파워 슬라이딩 도어 등 스마트한 기능을 통해 편리함까지 갖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니밴의 명성을 지켰다.

새로워진 사양과 트랜디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돌아온 올뉴카니발은 지난 5월 부산모터쇼 공개 이후 주목받고 있다. 또 지난달부터 온에어 된 프리론칭, 론칭 광고 도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광고는 '떠나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라는 테마하에 이 시대의 젊은 아빠가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캠핑 트렌드와 멋진 풍광과 함께 담아 변화하는 아버지 상과 타겟 인사이트에서 도출한 Father's Lesson이라는 카피와 함께 프리론칭, 글램핑, 별편까지 세 가지 소재로 제작됐다.

"아들아, 일만 하는 어른이 되지 마라"는 메시지로 시작되는 프리론칭은 일과 삶의 균형을 가진 멋진 삶을 살길 바라는 이 시대 아빠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다. 광고는 과거 전통적인 아버지상에 물음표를 던지는 동시에, 아이와 함께 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올뉴카니발 타겟의 심리를 카니발로 자극하고 있다.

/임의택기자 ferrari5@

페이스북 광고업체 인수

페이스북이 SNS가 아닌 일반 웹사이트에서 비디오 광고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다.

페이스북은 3일(한국시간) 비디오 광고 기술 업체 '라이브레일'을 인수한다고 밝혔다.

라이브레일은 온라인 비디오 광고 기술 업계에서 가장 유력한 기업 중 하나다.

이 회사는 미국 메이저리그의 엠엘비닷컴(MLB.com), ABC, 데일리모션, A&E 네트웍스 등을 고객사로 갖고 있다.

매월 온라인과 모바일로 약 70억 건의 비디오 광고를 제공하고 있다.

/박성훈기자 zen@

아우디코리아는 3일 특별전시장 'A8 아트플렉스'에서 최고급 프리미엄 세단 '뉴 아우디A8'을 출시했다. /아우디코리아 제공

아우디코리아, '뉴 아우디 A8' 출시

아우디코리아는 3일 서울 강남 학동사거리에 위치한 특별 전시장 'A8 아트플렉스'에서 아우디 최고급 프리미엄 세단인 '뉴 아우디 A8'을 공개했다.

뉴 아우디 A8는 △고사양인 A8 L W12와 고성능 모델 S8 △TDI 디젤 엔진 모델 5종 △TFSI 가솔린 엔진 모델 3종 등 10개 모델로 선보인다. 모두 엔진에 8단 팁트로닉 자동 변속기와 풀타임 4륜 구동 시스템인 콰트로를 결합했다.

뉴 아우디 A8 은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를 세계 최초로 적용했다.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는 좌우 각각 25개의 고광도 LED 램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운전자 시야를 더 밝고 넓게 확보해 준다. 코너링 시 조향 방향으로 라이트 광도를 높여주고, 맞은 편과 전방 차량을 동시에 8대까지 감지해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는 방해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또 전 모델에 헤드 업 디스플레이(HUD)와 계기판 중앙에 7인치 대형 모니터도 장착했다.

이밖에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사고발생 시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2차 추돌 방지 보조 시스템 △주행 중 의도하지 않은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인 아우디 액티브 레인 어시스트 △야간 운전 시 사람이나 동물을 식별해 알려주는 나이트 비전도 있다. △기어 레버 옆 터치식 패드로 조작이 가능한 3D 내비게이션 △초음파 센서로 주차 공간 파악이 가능한 탑 뷰 디스플레이 주차 보조 시스템 등 안전 사양도 강화했다.

/서승희기자 ssh814@

"물에 빠진 스마트폰, 이렇게 관리하세요"

자연통풍으로 습기 제거 후 베란다에서 말리도록

전국 장마와 여름 휴가 시즌으로 스마트폰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습기에 취약한 스마트폰에 물이 들어가면 치명적이다.

방수되는 스마트폰이 속속 출시되고 있지만 최신 일부 모델에 해당될 뿐이다. 통신사와 제조사 관계자들로부터 스마트폰이 물에 젖었을 때의 자가 대처법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스마트폰에 물이 들어갔다면 자연 통풍을 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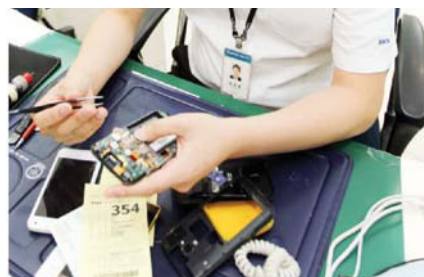
스마트폰의 습기를 빨리 없애기 위해 헤어 드라이어를 쓰는 경우가 있지만 바람이 매우 뜨거워 기기와 액정이 손상될 수 있다. 쌀독과 밥솥에 넣어야 스마트폰이 빨리 건조된다는 속설은 틀리다. 밥솥은 수증기 자체를 건조시키지 못하고 쌀독에 스마트폰을 넣으면 충전·이어폰 구멍에 곡물 가루나 쌀벌레가 들어갈 수 있어 부식 위험이 크다. 폭신한 수건을 한장 깔고 서늘한 베란다에서 스마트폰을 하루 동안 말리는 것이 최선이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수영장이나 바닷물에 빠뜨렸다면 즉시 건져 내어 수돗물에 담가야 한다. 조개를 해감하듯 이물질을 배출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수영장과 바닷물에는 소금기·소독제·이물질이 많아 스마트폰을 더 빨리 부식시킨다.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제거한 후 수돗물에 1~2분 담가 염분기와 약품을 빼야 한다. 서비스 센터를 당장 방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약국에서 에탄올을 사서 오염 부위를 살살 닦으면 좋다.

스마트폰을 워터파크나 찜질방에 소지하고 가는 것도 위험하다. 스마트폰이 목욕탕과 찜질방 수증기에 15분 이상 노출되면 스피커 부분을 중심으로 손상이 온다. 내부 기기판에 습기가 스미어 부품까지 부식될 수도 있다.

한 스마트폰 제조사 관계자는 "요즘 스마트폰은 액정이 커져서 피처폰과 달리 충격에 약하다"면서 "스마트폰은 일종의 작은 컴퓨터이니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팬택 서비스센터에서 엔지니어가 고장난 스마트폰을 수리하고 있다. 여름 휴가철 물놀이를 하다 스마트폰을 물에 빠뜨렸다면 서비스센터를 즉시 찾는 것이 상책이다. 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단말기를 수돗물로 씻은 후, 서늘한 곳에 자연 통풍으로 말려야 한다. /손진영기자 son@

바캉스 스마트폰 관리 Q&A

1. 스마트폰이 젖으면 헤어 드라이어로 말려야 하다…(X)
☞ 헤어 드라이어의 뜨거운 바람은 고장의 원인이 된다.

2. 스마트폰 건조는 밥솥과 쌀독이 빠르다…(X)
☞ 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자연 통풍이 제일 좋다.

3. 스마트폰이 느려지면 즉시 껐다 켜야한다…(X)
☞ 스마트폰 자체의 오류 수정 시간이 있다. 스마트폰이 느려져도 1~3분 정도 기다리자.

CJ헬로비전, 클라우드 인프라 무료 지원

연말까지 100여곳 '중소기업 서포트 센터' 운영

CJ헬로비전이 중소기업들의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무료 지원에 나선다.

CJ헬로비전 '비전클라우드'는 그동안 영화, 모바일, 게임 등 미디어·콘텐츠 맞춤형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보여준 인프라 구축과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소규모 업체들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서포트센터'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초기비용 부담이 큰 개발인프라를 무상 지원함으로써 1인기업, 벤처기업의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비전클라우드 중소기업 서포트센터는 연말까지 최대 100여개 중소기업에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인프라를 무료 지원하고 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적 기술과 컨설팅도 함께 제공한다. 인력이 부족하고 시간과 자본의 제약을 받는 영세 업체들이 인프라 구축 시 발생하는 투자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양질의 서비스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CJ헬로비전은 이를 통해 소규모 업체들의 클라우드 서비스 진입장벽을 낮추고 벤처 생태계의 활성화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이상용 CJ헬로비전 운영총괄은 "초기비용 부담이 큰 개발인프라를 무상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쟁력 있는 기술과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미디어 맞춤형 클라우드'라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관련 산업 내 중소업체들의 다양한 성장기반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 서포트센터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클라우드 인프라는 ▲VM서버 2기(2Core, 4GB) ▲웹스토리지 100G ▲네트워크 전송량 1TB(VM 사양 포함) ▲CDN(데이터전송) 1TB 등이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비전클라우드 홈페이지 가입 후 '무료 서비스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한 뒤 사업자 기본정보 인증을 하면 된다. /이재영기자 ljy0403@

다이슨, 유선 진공청소기 출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열린 영국 프리미엄 가전업체 다이슨 소형 유선 진공청소기 DC52, DC63 국내 출시 행사에서 수석 디자인 엔지니어와 모델들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SKT, IT헬스로 중국시장 진출

SK텔레콤이 IT 헬스 산업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SK텔레콤(대표 하성민)은 중국 심천에 '헬스케어 R&D 센터'와 '메디컬센터'를 열고,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3일 밝혔다.중국 GDP기준 4대 도시 중 하나인 심천은 ICT와 헬스케어산업, 신 에너지 분야를 중점 육성 3대 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날 진행된 개소식에는 하성민 SK텔레콤 사장과 천비아오 심천 부시장, 판밍춘 심천시 투자지주공사 동사장과 중국 파트너사인 VISTA의 옌이펑 동사장 등 국내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개소식에 앞서 하성민 사장은 쉬친 심천시장과 헬스케어 시장확대를 위한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쉬친 심천시장은 SK텔레콤의 헬스케어 사업이 시진핑 정부의 바이오·헬스케어 육성정책과 어울려 중점 프로젝트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심천시는 2015년까지 헬스케어 기업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지원하는 등 헬스케어 산업규모를 36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성민 SKT 사장이 개소식에서 심천시의 지원에 감사인사를 전하고 있다. /SKT 제공

이번에 설립되는 'SK텔레콤 헬스케어 R&D센터'는 체외진단 실험실과 파트너사와 협업을 위한 오픈 콜레보레이션 센터, SK텔레콤이 진행하는 헬스케어 사업을 전시하는 홍보관으로 구성된다.

심천메디컬센터는 면적 4700㎡(1420평) 규모로, 최신 설비를 갖춘 건강검진센터와 가정의학과·소아과·치과·부인과 등 4개 과목의 전문 클리닉을 함께 운영한다. /장윤희기자

지상파 3사, JTBC에 법적 대응

지방선거 출구조사 무단사용… "정당한 취재활동" 반박

지상파 방송3사가 종편채널인 JTBC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4 지방선거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전 도용했다는 이유다.

지상파 방송3사는 3일 "많은 비용과 노하우가 투입된 중대한 영업비밀 자산인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JTBC가 먼저 방송한 것은 도용에 해당한다"며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3사는 4일 오후 6시 전후 JTBC의 출구조사 발표화면을 비교한 결과, JTBC가 3사의 방송을 보고 '인용 보도'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입수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방송3사는 향후 법적인 대응과 관련 각사의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 사실규명을 위한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다각적인 대응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JTBC는 지난달 4일 실시된 지방선거의 투표 종료 직후 4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자체 예측조사를 발표한데 이어, 오후 6시0분47초경부터 지상파 출구조사의 광역단체장 1·2위 명단과 득표율을 공개한 바 있다.

지상파방송3사는 JTBC에 지난달 17일 방송 경위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JTBC는 지난달 26일 "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를 인용 보도했다"며 "정당한 취재활동을 통해 취득한 것"이라는 요지의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상파 방송3사는 "이번 지방선거 출구조사는 간접비를 제외하고도 24억원을 투입해 전국 단위로 실시한 대형 프로젝트이며, 많은 노하우가 집결된 것"이라며 "지상파 3사의 중요 자료를 불상의 경로로 사전에 취득해 이를 자사의 이익을 위해 활용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태균기자 ksgit@

"산재 한해 9만… 사회 안전 패러다임 바꿔야"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기업 위험성 평가인정제 추진 지원
매년 7월 강조주간 행사 등도 진행

안전보건공단 백헌기 이사장 /안전보건공단 제공

1. 최근 우리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안전'입니다. 일상생활은 물론 산업현장에서도 잇따라 대형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일터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250여 명이 부상하고, 5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한해 평균 9만여 명의 재해자가 발생하고, 이중 2000명 가까이 사망하는 셈입니다.

2013년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재해자 수는 9만1824명, 이중 1929명이 사망했습니다.

2012년과 비교하면 전체 재해자 수는 432명이 줄었지만, 사망자 수는 65명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64년부터 지난해까지 재해 근로자 수는 440만명이 넘고, 사망자도 8만 5000명이 넘습니다."

2.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수준은 어떤 편입니까? 또 산업재해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은데요.

"나라마다 산업재해 통계를 산출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1만 명당 사고로 몇 명이 사망하는 지를 나타내는 사고성 사망 만인율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에 비해 2배에서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2년 산업재해로 인한 직접손실액은 3조8000억원이 넘었고, 간접손실액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액은 무려 19조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산업 재해자 1명당 2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에서는 평균 30일의 근로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선진국은 오랜 시간을 거치며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오랜 시간동안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압축성장을 하면서 안전문제의 시행착오를 해결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사회저변에 '안전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도 안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투자'로 생각하기 보다 '손실'로 인식하는 경향이 큽니다.

이 같은 현상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보다, 재해가 발생한 후의 처리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간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앞으로 안전이 기업경영의 중요한 축으로 내재화되고 장수기업이나 지속가능한 기업의 필수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될 때 우리 산업현장에 안전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활동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위험성평가 도입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은 여러 가지 여건상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때문에 정부와 공단에서는 '위험성평가 인정'제도를 통해 위험성평가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산재예방 요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재예방 요율제'는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거나,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공단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산재예방요율제의 성과분석 등을 통해 적용대상을 확대 할 계획입니다."

5. 요즘 소통이 화두입니다. 안전보건분야에서도 특히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치 공단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정보제공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안전보건활동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공단에서도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라 뉴미디어를 활용한 정보제공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환경에 맞는 다양한 안전보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사업장에서 손쉽게 안전보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1000개 문장을 13개 국어로 제공하는 '위기탈출 다국어회화'앱과 산업재해 속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기탈출 사고포착'앱,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 등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응급조치'앱,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체조송'앱, 안전보건의 다양한 정보를 담은 '지식충전소'앱 등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은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안전보건 앱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6. 내년에 공단에서 국제산업보건대회를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대회가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소개해주시죠.

"제 31회 국제산업보건대회가 내년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국제산업보건대회는 국제산업보건위원회(ICOH)가 주관하는 행사로 1906년 이탈리아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3년마다 열리는 보건분야 최대의 국제행사입니다.

국제산업보건위원회에는 전 세계 93개국 2000여명의 산업보건분야 전문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지난 4월 공단 본부에 국제산업보건대회 사무국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공단은 지난 2008년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7월 첫째 주는 정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입니다. 강조주간을 맞아 공단에서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 열리는 행사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매년 7월 첫째 주는 정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이고, 7월 첫째 주 월요일은 '산업안전보건의 날'입니다.

올해 제 47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은 '안전한 일터, 행복한 국민'을 캐치프레이즈로 7일부터 13일까지 1주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국내외 200여개 업체, 1만여점의 최신 안전장비와 제품을 선보이는 국제안전보건 전시회, 다양한 분야의 기술 세미나와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번 강조주간을 통해 경제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기본이 바로 안전이라는 인식이 우리사회에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8. 본격적인 여름철입니다. 여름은 특히 옥외에서 일하는 분들에겐 더욱 힘든 계절인데요.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사고와 예방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여름철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소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마 등에 따라 건설현장이나 생활주변 시설물 등이 침수나 붕괴우려가 없는 지 꼼꼼히 살피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특히 폭염에 의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적당한 휴식과 함께 물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고, 낮 시간대에는 작업여건에 따라 작업량과 작업시간을 조절하는 등 근로자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9. 우리사회 안전을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일은 정부와 공단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사고예방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사회에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고려하고, 기업은 안전에 대한 투자를 비용이 아니라 경쟁력 제고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으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국민은 작고 사소한 것부터 안전을 준수하는 노력이 일상화되어야 합니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삼국지 미인 '초선' 알고보니 개콘 '오나미'

'개성파' 친근함 무기로 CF모델 속속 발탁
'신무' 신구 '쟁의나라' 정형돈 등도 맹활약

아이돌이나 미녀 배우들이 사실상 독식했던 게임광고 모델 시장이 달라지고 있다. 외모를 떠나 개성이 넘치는 인재들이 득세하는 중이다.

1일 서비스를 시작한 엔터메이트의 모바일 전략 삼국지 게임 '영웅의 탄생:초선의 유혹 for Kakao'(이하 영웅의 탄생)는 출시 전부터 게임 내 캐릭터인 '초선'을 앞세웠다.

초선의 섹시한 뒷모습을 티저 형식으로 공개하며 유저의 호기심을 유발했고 최근 개그콘서트에 출연하는 인기 개그우먼 오나미가 실루엣의 주인공으로 밝혀졌다.

게이머들은 "몸매가 너무 예뻐서 아이돌 가수나 배우인 줄 알았다. 오나미의 이번 기용은 '역대급 반전'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영웅의 탄생'은 삼국지 소재로 제작된 턴제 전략 RPG이며 다양한 영웅을 육성해 전장에서 승리하는 방식이다.

인크로스는 3일 모바일 RPG '쟁의 나라, 선국(이하 선국)'의 TV 광고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광고는 영화 '패왕별희'로 국내에 알려진 경극을 패러디한 것인데 인기 예능 프로 '무한도전'의 정형돈이 등장한다.

패왕별희 속 경극 배우로 변신한 정형돈은 특유의 입담을 과시하며

웃음을 자아낸다. 이 게임은 모바일 장르 최초의 대규모 국가전을 강조하고 있다.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의 모바일 액션 RPG '신무'는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 배우 신구를 CF모델로 발탁했다.

신구는 광고에서 20대 커플에게 플레이 방법을 일러줄 정도의 고수로 등장하고 "신구 짱!"이라고 치켜세우는 외국인에게 "신무다 이놈아!"라고 응수하는 등 '예능감'을 발휘한다.

이른바 '개성파'들이 젊은 미남 미녀들을 대체한 비결은 친근함에 있다. 아이돌은 보기에는 좋지만 거리감이 적잖이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재치와 달변으로 무장한 이들 개성파는 친근함이 미덕인 모바일게임과 잘 어울린다. '애니팡' '몬스터 길들이기'와 같은 인기 모바일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의 연령층은 1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하다.

즉 누구나 마음을 열 수 있는 CF모델을 내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인크로스 기획팀 이성희 과장은 "대다수 모바일 RPG의 테마는 전쟁이다. 무거울 수밖에 없는 주제인데 개그맨이나 넉살 좋은 배우들을 알리미로 활용하면 게임의 이미지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이펀컴퍼니 임원들과 게임 모델들이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펀컴퍼니 제공

'메이드 인 차이나' 게임의 러시?

이펀컴퍼니 '삼국취' 등 신작 3종 공개

이펀컴퍼니는 2일 2014년 하반기 모바일게임 신작 3종을 소개하고 추후 게임 서비스에 대한 전략과 비전을 발표하는 '트로이카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이펀컴퍼니는 지난해 모바일 전략시뮬레이션 '삼국히어로OL' 출시를 시작으로 모바일 삼국지게임의 기준을 제시한 '삼국지PK', 말랑말랑 무협RPG '신기행' 등의 타이틀을 인기리에 서비스한 중국계 기업이다.

이 회사는 이날 그 동안 국내에서 서비스해온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사업의 성과를 발표하고 하반기 모바일 게임시장을 주도할 전략과 '삼국취' '마을을 지켜줘' '약탈의 민족' 신작 3종을 공개했다.

'삼국취'는 이펀컴퍼니가 세 번째로 선보이는 전략RPG로 기존 삼국지류 게임과 차별화되는 애니메이션 풍의 그래픽과 탄탄한 컨텐츠가 특징이다.

또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간편한 조작과 몰입도 높은 시나리오 퀘스트, 긴장감 팽팽한 PVP시스템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마을을 지켜줘'는 카툰풍 그래픽과 유머러스한 스토리를 갖춘 신개념 디펜스 게임으로 치밀한 전략을 바탕으로 하는 PVP 및 PVE 컨텐츠와 SNG요소가 한데 어우러져 있다. 특히 중국 안드로이드와 iOS 양대 마켓을 석권하고 각종 대회에서도 수상 경력이 화려한 게임이다.

'약탈의 민족'은 자신의 마을에 건물과 기지를 건설해 타 플레이어의 침공을 막아냄과 동시에 전투로 부와 영예를 얻는 본격 전쟁 게임으로 AOS의 요소도 결합됐다. 특히 중국에서 출시 당일 iOS 매출 2위에 오른 인기작이며 현재 동남아 14개국에서도 서비스 중이다.

/박성훈기자

"레이시 조나스가 나랑 닮았다"

린제이 로한 'GTA' 개발사 소송

'악마의 게임'으로 불리는 '그랜드 세프트 오토'(GTA) 개발사가 할리우드 말썽꾼 여배우 린제이 로한(28)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은 로한이 맨해튼 소재 뉴욕주 지방법원에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와 그 레이블인 록스타 게임스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 비디오 게임에 등장하는 '레이시 조나스'라는 캐릭터가 자신의 옷차림, 목소리, 이미지, 스타일 등을 닮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거식증에 걸린 유명한 여배우로 항상 파파라치들의 추적을 피해 다니는 것으로 설정된 점도 자신의 상황과 흡사하다고 로한은 소장에서 지적했다.

로한은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을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린제이 로한. /AP 연합뉴스

GTA의 레이시 조나스.

1997년 처음 출시된 GTA 시리즈는 주인공(유저)을 악당으로 설정해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을 게임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9월 엑스박스360과 플레이스테이션3 버전으로 출시된 최신작 'GTA V'는 발매 24시간 만에 예약 주문을 합해 1121만부가 팔려 매출 8억달러를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도 케이블TV tvN 라이브 코미디쇼 'SNL코리아'에서 패러디한 코너를 운영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엔트리브 SF 디펜스물 '세컨어스' 출시

글로벌 단일 서버 구축 130개국 연동

엔트리브소프트는 2일 SF 전략 디펜스 모바일게임 '세컨어스'를 2일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 출시했다.

두 번째 지구를 뜻하는 세컨어스는 이용자가 총사령관으로 임명돼 기지를 성장시키는 임무를 수행한다. 기지를 확장,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이용자의 행성을 침공해 자원을 확보해야 하고 그 자원으로 자신의 병력과 방어 시설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세컨어스에는 해머, 거너, 와일드크랩 등 총 10종의 메카닉 전투 유닛이 등장한다. 전투 유닛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 각양각색의 전술이 만들어진다. 이용자는 자신만의 전법으로 난공불락의 기지들을 함락해가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다.

국내 모바일게임에서는 보기 드문 글로벌 단일 서버를 제공함으로써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130여 개국 게이머들과 직접 대결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이용자들과 길드를 구성해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전투에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

특히 세컨어스는 기존 같은 장르 게임들과 달리 병력을 생산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 화끈하고 신속한 게임 전개가 가능하다.

출시를 기념해 엔트리브소프트는 사전 등록 이벤트 참가자 중 추첨으로 아이패드 미니, 넥서스7,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박성훈기자

남자도 하이힐병?…무지외반증 조심!

발 볼 넓고 키높이 깔창 사용하는 사람 주의

조금 크더라도 발이 편한 신발을 구매하는 것이 발 건강에는 좋지만 보통 신발을 신다보면 늘어난다는 생각에 발에 딱 맞는 신발을 사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구두를 자주 신는 직장 남성의 경우는 자신의 발볼을 고려하기보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이즈에 맞는 신발이나 모양이 날렵한 제품을 선호한다. 하지만 이런 신발이 무지외반증을 유발할 수 있다.

◆심해지면 다른 곳에도 영향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 뼈가 변형되는 질환으로 통증과 함께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휘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또 발의 변형이 계속될수록 통증 역시 심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후천성 무지외반증 환자는 2005년 2만4000명에서 2009년 4만200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여성 환자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약 7배 정도 높지만 남성 환자들도 2005년 기준 3200명에서 2009년 52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발병 원인은 다양하지만 주로 작은 신발이나 하이힐 등 불편한 신발을 자주 신었을 때 나타난다. 특히 남성들은 키높이 깔창을 자주 착용하거나 선천적으로 발볼이 넓은 사람이 발 길이에만 맞는 신발을 구매해 지속적인 압력을 받을 경우 질환이 생긴다.

뼈가 휘기 시작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변형을 막기 위해서는 키높이 깔창 착용을 삼가고 딱딱한 신발보다는 부드러운 신발을 신는 것이 좋다.

아울러 신발을 구매할 때는 발 길이와 넓이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성화를 신었을 때 불편함을 느낀다면 자신의 발에 맞는 수제화를 구매하거나 각 브랜드에서 길이와 볼에 맞는 신발을 측정해 추천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무지외반증 치료는 초기에는 보조기 착용과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으로 개선이 가능하다. 하지만 휜 정도가 심하고 일반 신발을 신었을 때 통증이 심하다면 수술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지용남 구로예스병원 원장은 "무지외반증으로 관절이 돌출된 상태에서 오래 걸으면 엄지발가락의 튀어나온 부위가 빨갛게 변해 아프고 발가락에 굳은살이 생기게 된다"며 "심해지면 무릎이나 고관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자외선에 지친 모발, 우유 팩으로 생기를

물놀이 후 세정은 필수…드라이기보다 선풍기 이용

30도를 웃도는 불볕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피부와 몸매 관리이외에도 신경써야 할 것이 모발 관리다.

여름철은 모발과 두피의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시기다. 자외선 지수가 위험 수준인 11단계까지 치솟을 때, 모발은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되고 만다. 또 업무 중 강한 에어컨 바람과 더위를 피해 떠난 바닷물 속의 염분은 모두 건강한 두피와 모발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

여름철, 업무시간 내내 틀어놓은 에어컨 때문에 실내·외 온도차가 커져 두피는 민감해진다. 외출 후 서늘한 에어컨 바람이 두피의 땀을 급작스럽게 증발시켜 자칫 두피 건조는 물론 비듬과 가려움증까지 발생할 수 있다.

건조해진 머리는 가렵다고 무턱대고 긁지 말아야 한다. 부드러운 빗질과 마사지로 장시간 에어컨 사용으로 긴장한 두피를 이완시켜주는 것이 좋다.

두피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해 모발과 모근에 영양을 공급시켜 준다. 샴푸 후에는 드라이어를 사용하면 두피와 모발을 더 건조시켜 자제하고 자연바람이나 선풍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주 1회 우유팩도 효과

강한 빛을 오랜 시간 쬐게 되면 머리카락도 피부처럼 화학적 손상이 발생한다. 자외선은 모발의 단백질층(케라틴)을 파괴하기 때문에 모발의 끝이 건조해지고 심하면 모발이 끊어진다.

이때 모발 우유팩도 좋은 방법이다. 우유에 포함된 단백질과 비타민A는 모발의 주성분인 케라틴 형성을 돕는다. 200㎖ 우유 한 팩에 달걀 흰자를 섞어 모발에 바르고 15분 뒤 미온수로 깨끗하게 헹궈내면 촉촉하고 탄력 있는 머릿결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두피에 잔류한 노폐물은 두피 안의 모공을 막아 지루성 두피염을 야기한다. 심할 경우 탈모까지 생길 수 있어 청결이 가장 중요하다.

/정영일기자 prms@r

GSK, 이휘재와 함께 '로타릭스' 기부

200명 아기 로타 바이러스 예방 혜택 제공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이하 GSK)이 방송인 이휘재와 함께 홀트아동복지회에 자사의 영유아 로타 바이러스 장염 예방 백신 '로타릭스' 200명분을 기부했다.

GSK는 최근 로타릭스가 전세계적으로 2억 도즈 판매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휘재를 초청해 로타 바이러스 장염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기부는 이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GSK와 이휘재는 장염으로부터 더 많은 아기들을 보호하자는 데 뜻을 모아 함께하게 됐다.

이휘재는 "쌍둥이가 장염으로 아픈 것을 보고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 로타 바이러스 장염은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때문에 백신을 맞지 못하는 아기들이 많다는 점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로타 바이러스장염은 심한 설사를일으키는질환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질환의 설사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추천하고 있다.

로타릭스는 경구용 로타 바이러스 백신으로 순수 사람균주를 이용한 자연감염 효과를 통해 질환을 예방한다.

/황재용기자

이대목동병원, 좌우 바뀐 X-선 사과

영상 착오 입장 표명…"수술환자 없고 약물 치료"

이대목동병원(원장 유권)이 부비동염 유무를 판별하기 위해 촬영한 부비동 일반 X-선(PNS Water's View) 영상의 좌우가 뒤바뀐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해명에 나섰다.

병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과문을 작성해 병원 벽면 및 게시판, 홈페이지에 게시해 입장을 밝히고 공식적인 사과를 했으며 환자들이 불필요한 오해나 잘못된 정보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명했다. 또 해당 환자 주치의는 환자들에게 X-선 영상 좌우가 바뀐 사실에 대해 알리지 않은 점을 정중히 사과했으며 치료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음을 설명했다.

특히 병원은 X-선을 촬영한 환자 모두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 없는 경미한 환자이며 약물 치료가 이뤄져 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일으킨 방사선 기사를 업무 정지 시키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병원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안전과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직원 교육과 관리 감독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한 방사선 기사의 착오로 인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4월 24일까지 촬영된 X-선 검사 중에 발생했다.

/황재용기자

'소중한 간 되찾기' 캠페인 전개

간 학회, 찾아가는 무료 검진·상담 진행

대한간학회(이사장 한광협)가 9월까지 서울, 경기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소중한 간 되찾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은 바쁜 생계 등으로 병원을 찾지 못하는 재래시장 상인 및 상대적으로 의료 혜택이 적은 중소기업 임직원, 간 질환 인식 및 검진율이 낮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학회는 캠페인을 통해 이들에게 간 질환 무료 검진 및 교육 강좌를 제공할 계획이며 상담을 통해 간 질환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캠페인에 참여한 이들에게 학회에서 발간한 '간 질환 바로 알기' 소책자도 배포할 방침이다.

안상훈 대한간학회 홍보이사는 "더욱 많은 이들이 간 질환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예방과 검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싸이·신동엽·류승룡·김보성>

‘엉뚱 F4’ 유통업계 광고 블루칩 등극

빅모델에 맞서 코믹함으로 승부, ‘B급 마이너감성’ 건드려 뜨거운 반응

최근 유통업계 광고의 판도를 새로 짜고 있는 ‘개성파 모델 F4’가 화제다. 잘 생기거나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빅모델들이 주름잡던 광고계에 본인만의 확실한 색깔을 내며 대중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개성파 모델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강남스타일로 B급 코드의 대명사로 등극한 ‘싸이’를 비롯해 독보적 19금 코드 패러디의 제왕 ‘신동엽’, 거친 남자의 상징이었던 배우 류승룡과 김보성은 코믹하고 엉뚱한 모습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광고계 새로운 블루칩으로 떠오른 이들 F4는 그들만이 지닌 독특한 개성과 코믹함을 적절히 활용해 신선한 웃음을 유발해낸다.

◆‘新 노다지’ 미친인맥 ‘싸이’

강남스타일로 ‘B급 코드’의 광고계를 접수했던 싸이(PSY)가 최근 발표한 새 뮤직비디오 한편으로 또 한번 유통업계의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달 9일 공개된 새 뮤직비디오 ‘행오버’의 빌보드 진입 소식과 함께 뮤직비디오에 노출된 편의점 상품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집계가 나오는 등 유통업계가

싸이의 뮤직비디오 ‘행오버’의 한 장면

비락식혜의 김보성편 /비락식혜 제공

일명 ‘싸이 효과’로 들썩이고 있다.

같은 장면에서 스눕독이 손에 들고 있던 삼각김밥의 매출은 39.2% 늘었고, 테이블에 놓여있었던 포카칩의 매출도 26.8%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뮤비뿐만이 아니다. 월드스타 싸이의 ‘미친 인맥’을 확인할 수 있는 트위터도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드러냈다. 지난달 26일 오후 싸이가 자신의 트위터에 “스눕독에게 포카칩을 주기로 약속했다(I promised to bring this chip to SnoopDogg)”라는 글과 함께 스눕독과 찍은 사진을 게재하자, 실제로 포카칩의 매출은 전주 대비 소폭 상승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19금 코드’ 패러디 제왕 ‘신동엽’

‘19금 코드’를 친숙하고 부담없이 풀어내는 ‘귀여운 변태’ 신동엽은 SNS와 케이블 채널을 무대로 한 광고에서 맹활약 중이다.

최근 더맥키스컴퍼니는 19금 개그의 황제 신동엽을 모델로 제품 특성을 익살스럽게 풀어낸 광고를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광고 속에서 신동엽은 다양한 음료를 섞어 마시는 제품의 특징을 성적 코드에 녹인 여러 상황을 통해 코믹스럽게 보여준다. 더맥키스컴퍼니측은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안에 60만병 판매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느끼한 상남자 코믹 매력 ‘류승룡’

진지함 속에 묻어나는 코믹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류승룡은 지난해 팔도 ‘남자라면’의 광고에서 능청스러운 매력을 발산하며 국민 첫사랑 수지와 함께 ‘광고주가 뽑은 올해의 광고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최근에는 배달 앱인 ‘배달의 민족’ 광고에서 고구려 장수로 변신해 또 한번 유쾌한 에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이 광고는 고구려 벽화 ‘수렵도’를 패러디한 티저 영상을 시작으로 프랑스 화가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 미국 다큐멘터리 사진가 루이스 하인의 사진 작품 등 진지한 작품을 활용해 재치있게 표현했다. 특히 고전작품과 배달이라는 이질적인 소재를 접목시킨 아이디어와 그 속에 등장하는 류승룡의 살아있는 연기가 매우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 몸 ‘으리’ 대세남 ‘김보성’

25년 연기생활 내내 ‘의리’ 외길 인생을 걸어온 배우 김보성은 이니스프리 모델에 이어 비락식혜 모델로 등장해 ‘의리’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의리’ 콘셉트를 기반으로 김보성의 개성을 잘 담아낸 비락식혜는 전년 동기대비 35%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전국에 ‘의리’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광고에서 김보성은 ‘신토부으리’ ‘회오으리’ ‘으리집’ ‘으리음료’ 등 시종일관 진지한 표정으로 과장되고 코믹한 액션과 멘트로 소비자에게 폭발적인 웃음을 선사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사고

조 크로스 다큐영화 초대합니다

메트로신문이 애독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주스 전도사’로 잘 알려진 호주의 조 크로스(Joe Cross·사진)가 직접 제작하고 출연한 다큐멘터리 영화상영회의 초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다큐멘터리 ‘FAT, SICK & NEARLY DEAD’입니다. 현대인의 불균형한 식생활 습관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영화로 2011년 개봉하자마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조 크로스는 호주의 사업가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주인공으로 전 세계를 누비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는 이 영화를 통해 전 세계 20만명의 인생을 바꿔놓았으며, 해외에서 다수의 다큐멘터리 영화상을 수상 했습니다.

영화는 오는 8일 메가박스 센트럴점(오후 8시), 9일 압구정 CGV(오후 7시)에서 상영됩니다.

영화 관람을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4일부터 6일 낮 12

시까지 이벤트 홈페이지(http://rebootyourself.co.kr/)에 성함과 연락처, 희망하는 영화관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중 영화관별로 50명씩 총 100분을 추첨해 휴대폰으로 관람 교환권을 발송해 드립니다.

한편 이날 영화 상영회에는 조 크로스가 직접 방한해 자신의 경험담을 직접 들려줄 예정이며 텀블러와 레시피북 등 소정의 기념품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metro

행주산성의 대표 보양식 맛집 ‘향주’

‘힐링문화공간’으로 각광

맹렬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초복(7월 18일)을 시작으로 1년 365일 중 가장 덥다는 절기인 ‘삼복’이 차례로 이어진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여름의 더위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원기를 돋우기 위해서 보양식만큼 좋은 것이 없다.

서울 도심에서 가까운 근교인 행주산성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원기충전할 수 있는 힐링 및 몸보신 공간이 있어 눈길을 끈다.

음식에 대한 올곧은 철학으로 40여년간 이곳을 지켜온 ‘향주(대표 이상훈·http://blog.naver.com/code0903)’는 이미 많은 회사의 연회와 가족연회를 진행했던 명소로 잘 알려져 있다.

이곳은 특급 호텔에서 근무한

셰프들이 식자재 선별부터 조리 전 과정까지 원 스톱으로 관리하는 시스템과 시즌별로 시설확장 및 업그레이드 되는 인테리어로 각광을 받고 있다. 장어와 오리 및 한방 요리 등 ‘보양식’을 넘어,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힐링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향주의 대표메뉴는 풍천장어·오리·토종닭으로 정갈한 맛과 느낌을 고스란히 전하는 한정식과 깊은 맛을 담은 전골류와의 조화를 통해 음식으로 몸을 보호하고 까다로운 고객의 입맛과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독립된 개별 공간의 편리한 동선과 여유로운 테이블 배치를 통해 고객들이 넓은 공간 속에서 여유롭게 연회와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해 기업 연회 및 돌잔치·회갑·칠순·팔순잔치 등의 가족 연회를 위한 맞춤형 공간 연출 할 수 있다.

노래방·족구장·잔디구장 등이 구비돼 있다.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 등 모임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 게다가 행주대교·한강·개화산 등 주변 절경과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외관은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한다. 자연친화적인 인테리어는 ‘맛’에 ‘멋’을 더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준다.

예약 및 문의: 031-970-1066

/정영일기자

해외 직구 10명중 4명 ‘불만·피해’

최근 새로운 소비 형태로 최고 각광받고 있는 해외 직접구매의 이용자가 늘면서 10명중 4명이 이용 과정에서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 이내 해외직구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외직구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만·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40.2%에 달했다.

해외직구의 유형별로 주요 피해경험으로는 ▲해외직접배송에서는 ‘배송된 제품의 하자(제품불량, 파손)’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배송대행은 ‘배송지연·오배송’ ▲구매대행에서는 ‘반품·환불지연 및 거부’와 ‘과도한 수수료 부과’에 대한 피해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경력은 1~2년차 초기이용자가 80.9%로 가장 많았다. 1회당 지출비용은 평균 30만원으로, 금액대별로는 10만원대(36.5%)가 가장 많았다. /정영일기자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14-2-437호(2014. 6. 5 현재)

따뜻한 금융

여름을 얼려버릴 신한의 쿨~한 혜택!

신한에서 환전 받고 푸짐한 선물로 달콤하고 시원한 여름을 즐기자!

2014 Summer Dream 환전·송금 Festival

• 행사기간 : 2014. 6. 23(월) ~ 9. 13(토)

신한은행만의 특별한 경품 이벤트!

신한은행에서 USD 500 상당액 이상 환전 · 송금하고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응모만 하면 OK!

1등(1명)
한옥호텔 '라궁' 로열스위트 2박 숙박권
(2인 기준 패키지 상품)

2등(2명)
롯데호텔 상품권 30만원

3등(5명)
SKROSS 고급
여행용 어뎁터

4등(50명)
파리바게뜨
치즈케익 쿠폰

EVENT 2

알짜 혜택이 가득한 11종 썸머 쿠폰북!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USD 500 상당액 이상 환전만 하면 OK!

- 공항철도, 공항리무진, 포켓WiFi, 롯데면세점, 버거킹, 투썸플레이스, 빌리프 수분크림 등 해외여행 맞춤형 혜택 가득!

※ 공항소재 영업점(인천, 김포, 제주) 및 환전소는 본 이벤트에서 제외됩니다. ※ 경품 이벤트는 응모 고객에 한하며, 추첨 결과는 신한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합니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내 연락불가시 당첨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신한은행에서 부담하며, 경품의 사양 및 종류는 은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쿠폰은 MMS 지원 휴대폰만 발송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이나 홈페이지(www.shinhan.co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신한금융그룹 | 신한카드 | 신한금융투자 | 신한생명 |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 | 신한캐피탈 | 제주은행 | 신한저축은행 | 신한데이타시스템 | 신한아이타스 | 신한신용정보 | 신한PE투자자문

'화장품 동물실험' 전면 금지 가능할까

"대체할 방법 많다" 반대 움직임 거세 보호단체·일부 국회의원 법안 준비

줄지어 있는 작은 상자 안에 목을 고정한 토끼들이 있다. 이 토끼의 눈 점막에 몇 시간 간격으로 화학물질을 주입한다. 눈에 들어간 이물질을 씻어낼 눈물이 분비되지 않는 연약한 눈을 가진 토끼들은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등뼈나 목뼈가 부러져 죽어간다.

이것은 화장품 제조에 앞서 행해지는 동물실험 가운데 가장 잔인한 것으로 알려진 '드레이즈 테스트'의 모습이다. 화장품이 눈에 들어갔을 때 눈 점막을 자극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으로 샴푸나 마스카라 등을 생산할 때 실시했다. 이 실험은 동물이 느끼는 고통에 비해 의학적 도움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폐지되는 추세다.

◆동물실험 금지는 전 세계적 추세

동물실험은 새롭게 개발된 제품이나 치료법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데 의약품·화장품·식품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활용된다.

이 중 화장품 동물실험은 동물실험 반대 움직임이 가장 거센 영역이다. 인간의 건강과 생명이 아닌 그저 아름다움을 위해서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화장품 동물실험을 반대하는 사람들 역시 사람의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이 인체에 해롭지 않은지 검증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하지만 이미 검증된 원료를 이용하거나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법을 도입하면 동물실험 없이도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미 실험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수만 가지의 원료가 있는데다 이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등록된 화장품 원료만도 2만 종에 달한다. 이를 이용하면 별도의 검사 없이도 안전한 화장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론자들과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충분한 대체실험법들이 연구·개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시험관에 배양된 인간의 피부세포를 사용하면 오히려 동물 피부에 시험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

페니실린 같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동물에게 안전하다고 해서 인간에게도 반드시 그러하진 않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현재 OECD에서도 화장품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실험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3월 11일에는 유럽연합에서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전면 금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다. 유럽연합에 소속된 국가에서는 화장품과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이 금지됐고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 중 유럽 외 국가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라도 동물실험을 거친 경우 수입·판매를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인도도 이미 법적으로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했다.

드레이즈 테스트를 당하고 있는 토끼들

/Cruelty Free International·동물자유연대 제공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적으로 판매 전 동물실험을 요구해온 중국도 올해 6월부터는 중국 내에서 생산된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 의무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중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해서는 대체실험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수입품에 대해서는 아직 동물실험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후 수입품까지 대체실험을 인정할 가능성도 높다.

◆국내 실시 회사 없지만 언제든 가능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에서도 동물실험 반대는 하나의 흐름이 됐다.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협회 소속의 140여 개 화장품 회사가 모두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 복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고 유럽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동물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실험을 실시하는 추세다. 이런 흐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대체실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업체에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현행법상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회사가 원하면 언제라도 동물실험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화장품 동물실험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한 동물보호단체에서도 몇몇 국회의원들과 함께 동물실험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유럽연합의 동물실험 금지 1주년에 맞춰 준비하고 있어 예정대로라면 이미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 상정했어야 한다. 하지만 각종 이슈 등 우선 순위에 밀려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 소속) 역시 법안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의 보좌관은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에 대해 아예 제조를 금지하는 방안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판매 금지를 하는 식으로 가게 될지는 아직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혀 구체적인 법안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각에서는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동물실험이 필수이고 일부 검사의 경우 대체실험법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화장품 동물실험을 전면 금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금지되지 않은 지금도 모든 업체가 대체실험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까지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 역시 "해외의 동물실험 금지 사례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라며 우리나라까지 전면 금지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물론 지금 당장 동물실험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일지 모른다. 그러나 지속적인 논의와 준비는 끊이지 않고 이어져야 한다. 유럽연합에서도 전면 금지에 이르기까지 20년의 시간이 걸렸고 그동안 소비자, 동물보호단체, 업계 등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필요로 했다.

이형주 동물자유연대 정책기획팀장은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실험 전면 금지를 외치는 움직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인도적인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더 늘고 있으며 이들이 자발적으로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업체들을 거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화장품 동물실험 전면금지에 이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주얼리 티르리르, 브랜드 첫 세일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내추럴리즘'을 표방한 감성주얼리 브랜드 티르리르(tirrlirr)가 브랜드 론칭 최초로 세일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일은 오는 27일까지 전국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최대 30%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회사는 앞으로 1년에 1회 제한적인 브랜드 세일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할인 행사와 관련 자세한 정보는 티르리르 홈페이지(www.tirrlirrshop.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OPENAS
OPEN YOUR CREATIVITY

한국 비보이들, 런던 시티를 달구다!

관광공사, 런던 시민 대상 한국 비보이 공연 선봬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 런던지사는 런던 금융의 중심지인 시티지역에서 한국의 비보이가 공연을 했다고 밝혔다.

세계대회 40번 이상의 우승 경력을 가진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 '갬블러즈 크루'가 밀레니엄 브릿지, 세인트폴 대성당, 거킨 빌딩 등 런던의 랜드마크에서 총 5회에 걸쳐 공연을 펼쳤으며 한국 비보이들의 수준 높은 실력에 감탄한 런던 시민들의 환호성이 공연 내내 이어졌다.

특히 금융의 중심 지역답게 많은 수의 '양복부대'들이 비보이들의 몸짓 하나하나에 열광하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또 공연이 끝난 후에는 많은 시민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비보이와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관광공사는 한복을 입은 도우미들이 한국의 문화와 공연을 소개하는 '공연관광 리플렛'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시티 오브 런던은 올해 52주년을 맞이한 영국 3대 축제 중 하나다.

/황재용기자 hsoul38@

'기가 막혀'로 데뷔한 최장신 아이돌 루커스

"우린 섹시하지만 터프한 색깔"

여심 사냥꾼 콘셉트… 깔창없는 군무 자신

평균 키 184.4㎝의 다섯 남자(제이원·동현·초이·경진·진완)가 4일 '기가 막혀'로 데뷔한다. 루커스는 최장신 아이돌 그룹이다. 여심을 사냥하는 사냥꾼 콘셉트로 완벽한 군무를 보일 예정이다. '기가 막혀'만 1년 이상 연습했고 지난달 7일 음원 발매 전 '2014 드림콘서트'에 출연했다. 아이돌 홍수 속에서 살아남기를 다짐했다.

◆ 루커스는 그리스어로 '별'이라는 뜻이다.

제이원 : 소속사 관계자와 멤버들이 다수결로 결정했다. 당시 레드본, 맥시멈, 소리몰이, 에이티스 등 재미있는 그룹 이름이 많이 있었다.

◆ 합류 배경은.

제이원 : 애당초 저와 진완, 동현 세 명이 있었다. 두 명을 더 뽑아 그룹을 만들자고 제안해 초이와 경진이 합류했다.

초이 : 멤버를 선정할 때부터 키 180㎝이상이 기준이었다.

동현 : 춤을 잘 추지 못했던 멤버가 대부분이었다. 2년 동안 연습하면서 안무 창작은 물론 군무까지 소화할 수 있게 됐다.

◆ 원래 가수가 꿈이었나.

제이원 : 세 번째 데뷔다. 중학생 땐 배우가 되고 싶었다. 예고에 재학하다가 캐스팅됐는데 학칙상 기획사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인문계로 전학을 갔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데뷔를 했다. 22세에 두 번째, 이제 24세가 돼 또 데뷔한다. 연습 기간만 7년이었고 만능 연예인이 되고 싶다. '인생 삼 세판'이라는 말처럼 루커스에 모든 걸 걸 거다.

동현 : 고등학생 때 '거침없이 하이킥'의 정일우를 보고 배우를 꿈꿨다. 음악도 좋아하고 노래에도 소질이 있어서 가수로 데뷔하게 됐다. 연기를 병행하고 싶다. (루커스 "배우 이민호를 닮았다")

경진 : 외삼촌이 2000년에 가수로 활동했다. 공연을 보고 반해 그때부터 학교 행사 무대에 참여했다.

◆ 요즘 그룹은 대부분 자체 프로듀싱이 가능하다.

제이원 : 진완이 평소 작사를 한다.

진완 : 나중에 솔로를 하게 되면…(공개하겠다.)

루커스 : 처음 듣는 얘기다.

진완 : 루커스가 잘 된 뒤에. 하하.

왼쪽부터 초이·동현·진완·제이원·경진.

◆ 노래에서 '기가 막혀'는 한눈에 반한 여자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상형은?

제이원 : 외모로는 한가인이다. 그런데 호감 가고 마음 맞는 게 더 중요하다.

동현 : 청순했으면 좋겠다.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여자가 매력적이다.

초이 : 한눈에 반한 여자는 학창시절 누구나 있지 않나. (웃음) 이상형은 요리 잘 하는 볼수록 매력 있는 여자다.

경진 : 10대 시절 한눈에 반해 짝사랑했던 여자가 있다. 연예인은 아니다. 이상형은 첫인상이 좋아야 한다. 한눈에 반하는 스타일이다.

진완 : 배우 박보영이 이상형이다. 귀엽고 발랄하다.

◆ 롤모델은?

제이원 : 임창정처럼 가수와 배우를 다 하고 싶다.

동현 : 이승철과 김범수의 노래를 자주 듣는다. 정우성처럼 멋있게 사는 게 목표다.

초이 : 비처럼 카리스마로 관객을 사로 잡고 싶다. 나중엔 후배들이 루커스를 롤모델로 언급하면 좋겠다.

경진 : 춤 연습을 하다 보니 인피니트의 군무를 존경하게 됐다.

진완 : 타이거JK의 랩이 좋다.

◆ 데뷔 각오는.

동현 : 루커스를 알리 겠다. 1위는 과한 목표다. 일단 수많은 아이돌 사이에서 살아남겠다.

초이 : 1위하면 좋다. (웃음) 루커스만의 색깔을 보여주겠다. 강한 콘셉트가 많은데 우리는 감색에 가깝다. 섹시하지만 터프한 모습을 보여줄 거다.

경진 : 연말 시상식에 나가 신인상을 받겠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사진/팬 엔터테인먼트 제공·디자인/최송이

박지윤 여름 겨냥 싱글 발표

가수 박지윤(사진)이 싱글 발매를 앞두고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3일 소속사 미스틱89는 박지윤의 공식 페이스북 및 미스틱89 공식 트위터 등을 통해 여권 형태로 제작된 싱글 첫 티저 이미지를 내놨다. 공개된 이미지에는 박지윤의 영문 이름과 타이틀곡의 제목 '유후'는 물론 '2014. 7. 10'이라는 문구가 함께 담겼다.

여권 콘셉트와 관련해 소속사 측은 "박지윤의 새 싱글이 여름에 걸맞은 음악이기에 휴가와 여행에 잘 어울리는 여권형식을 활용한 것"이라며 "박지윤은 이를 시작으로 오는 10일 음원 발매 전까지 순차적으로 티저 이미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일 발표되는 박지윤의 새 싱글의 타이틀곡 '유후'는 그의 음색이 돋보이는 '여름 송'으로 알려져 음원 공개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양성운기자

인기 연습생 출신 뭉쳤다

실력파 아이돌 전설 데뷔

실력파 신예 남성 아이돌 그룹 전설이 데뷔한다.

리슨(본명 이승태), 로이(본명 진분), 이창선, 리토(본명 김민준), 유제혁 등 대형기획사 연습생 출신 멤버들로 구성된 전설은 이달 데뷔 싱글을 발표한다. 4년간 연습생 과정을 거친 이들은 이미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설은 데뷔 앨범을 내기 전에 이미 3집까지 작업을 모두 마쳤을 정도로 음악 욕심이 크다. K-팝의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외국 아티스트들의 곡을 받아 작업했다. 데뷔곡 '미련이 남아서'는 미국 작곡가 이언 제임스의 작품이다.

이언 제임스는 영국의 인기 그룹 원디렉션을 비롯해 타이오 크루즈, 올리 머스 등의 히트곡을 작곡한 유명 작곡가다. 한국에서는 동방신기가 이언 제임스의 곡 '롱 넘버'로 활동한 바 있다.

전설은 모든 멤버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에 능통하며 평균 신장 184㎝의 훤칠한 외모가 특징이다. /유순호기자

베테랑 티켓파워 이름값

이승환·god·JYJ 단시간 완판…공연계 활기

실력파 가수들의 컴백과 공연소식이 이어지면서 한동안 침체된 공연업계도 기지개를 펴고 있다.

'라이브의 황제' 이승환을 비롯해 한류그룹 JYJ(사진), god의 콘서트가 티켓 예매를 시작한지 한 시간도 안돼 매진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실력과 대중성 모두를 겸비한 아티스트임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이승환은 또 한번 티켓 파워를 과시했다. 2일 오후 7시부터 온라인 티켓 사이트에서 예매가 시작된 '돌발콘서트-WET 리미티드 에디션'이 사이트 오픈 30초만에 전석 매진되는 기록을 세웠다. 이승환은 13일 홍대 V-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 홍대 공연장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실력파 여성 그룹 바버렛츠와 두꺼운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술탄 오브 더 디스코를 게스트로 초대했다. 또 기존 공연과 달리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예정이다. 물론 대형 공연장이 아닌 600석의 소규모 공연이지만 단시간 티켓이 매진됐다는 점은 공연 업계가 살아났음을 보여준 것.

이승환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오드아이앤씨는 "이번 WET 리미티드 에디션은 600석 규모의 실내 공연장에서 가능한 최대치의 연출과 특수효과를 줬다"며 "전세계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공연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류그룹 JYJ도 공연 열기를 이어갔다. 8월 9일 잠실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JYJ의 공연 티켓이 오픈 20분만에 매진됐다.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JYJ의 잠실 주경기장 공연 '더 리턴 오브 더 킹' 티켓이 2일 오후 8시 인터파크를 통해 오픈된 지 20분만에 1차 티켓 오픈 좌석 2만장 매진을 기록했다. 접속자 폭주로 사이트 과부하까지 일어나 역대 최고의 티켓팅 대란이 벌어져 JYJ에 관한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고 전했다. 현재 JYJ는 3년만에 발매하는 국내 정규 2집 앨범 준비에 한창이다.

'국민 아이돌 그룹' god는 12일 서울에서 시작하는 전국 콘서트 티켓 전석이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다. 12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god의 콘서트는 지난달 25일부터 티켓팅을 시작했다. 광주와 부산 공연은 오픈 1시간만에 매진됐고, 전국 콘서트 티켓이 완판된 후 티켓 구입 문의가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력파 가수들의 콘서트 소식이 대형 참사로 침체된 공연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빅뱅 DVD 일본 오리콘 정상 올라

빅뱅(사진)이 오리콘 DVD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빅뱅은 2일 일본에서 발표한 라이브 DVD '2014 빅뱅 +α 콘서트 인 서울'로 오리콘 DVD 음악부문 일간차트 정상에 올랐다. DVD 종합 일간차트에서도 2위에 올라 현지에서 빅뱅의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이번 DVD는 올해 1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3일간 총 3만6000여 명을 동원한 콘서트 현장을 고스란히 담았다. 지난해 개최한 '빅뱅 얼라이브 갤럭시 투어 더 파이널 인 서울' 이후 약 1년 만의 콘서트를 담은 DVD로 오랜만에 5명 전원이 꾸민 화려한 퍼포먼스와 멤버별 개성이 묻어나는 솔로 무대를 즐길 수 있다.

이번 DVD에는 '마지막 인사' '판타스틱 베이비' '거짓말' 등 빅뱅의 히트곡들을 비롯해 지난해 발표한 빅뱅 멤버들의 솔로 무대와 멀티앵글, 메이킹 필름 등 1년여 만에 더욱 성숙해진 빅뱅의 진가를 느낄 수 있는 영상과 사진이 수록됐다.

/유순호기자 suno@

E channel

"사랑은 끝나고 감정만 남았다"

LOVE PAWNSHOP

매주 토요일 밤 11시

연애전당포

tvN '시간탐험대' 장동민 /CJ E&M

JTBC '마녀사냥' MC들. (왼쪽부터) 허지웅, 신동엽, 성시경 /JTBC

JTBC '국경없는 청년회-비정상회담' 포스터 /JTBC

케이블·종편 예능 지상파 눌렀다

재미·교육 두 마리 토끼 잡은 '시간탐험대'
'썸토크' '그린라이트' 유행시킨 '마녀사냥'

케이블·종편 예능이 과감함과 신선함으로 지상파를 능가하고 있다.

월요 예능 tvN '렛츠고 시간탐험대'(이하 '시간탐험대')는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조상들의 삶을 최대한 실제에 가깝게 재현한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8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시간탐험대'는 시청자들의 호평 속에 정규 프로그램으로 안착했다. 제작진은 출연진에게 실제 조상들이 입고 먹었던 것과 똑같이 하기를 요구했다. 이에 탐험대원 유상무는 "이 방송은 폐지돼야 한다"고 고통을 호소해 시청자의 웃음을 자아냈다.

'시간탐험대'는 선조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며 재미와 정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했다. 최근 방송에선 선사시대까지 넘어가며 수렵채집에 나서는 등 극사실주의 예능을 표방하고 있다.

케이블 채널은 한때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기만 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시행착오 끝에 tvN을 비롯한 여러 케이블 채널은 지상파가 하지 못했던 것들에 도전하며 신선한 웃음을 주고 있다.

종편채널 중 가장 다양한 시도를 하는 곳은 JTBC다. 올해 방송가에 불어닥친 '썸' 열풍을 주도한 곳 역시 JTBC '마녀사냥'이다. 연예인이 시청자 사연을 듣고 연애 상담을 해주는 방식은 앞서 라디오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 '19금 코드'와 신동엽·성시경·허지웅·유세윤 등 연예계 내로라하는 입담꾼이 가세하자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이성에 대한 허락의 의미로 쓰이던 영어 단어 '그린라이트'가 유행어로 자리 잡을 만큼 젊은이들 사이에서 '마녀사냥'의 영향력은 커졌다.

오는 12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는 연예인이 직접 고등학교에 입학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제 학생들과 똑같은 수업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연예인들이 학교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이미 있었지만 직접 0교시부터 야자(야간자율학습)까지 체험하는 경우는 없었다. 특히 학교를 떠난 지 오래인 성동일·김종민·윤도현·브라이언·허가윤·강준·혜박·남주혁 등이 체험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알려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미 앞서 다뤘던 양식을 재활용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오는 7일 첫 선을 보이는 '국경없는 청년회-비정상회담'은 전현무·성시경·유세윤의 진행 아래 샘 오취리·기욤 패트리 등 외국인 남성 패널 11명이 한국의 청춘들이 봉착한 현실 문제를 토론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06~2010년에 방영한 KBS2 '미녀들의 수다'와 비슷하다는 지적에 전현무는 "'미수다' 보다 더 깊고 발전된 방송이 될 것"이라며 "'미수다' 때는 한국말 하는 외국인이 '신기하다'는 인식이었다면 지금 시청자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한다. 과거 '미수다'가 에피소드 중심이었다면 우리는 토론을 한다"고 밝혔다.

연예인 부모와 자녀가 나와 '토크배틀'을 벌이는 '유자식 상팔자'는 SBS '붕어빵'과 늘 비교됐다. 차이점은 자녀의 연령대다. '붕어빵'은 10세 전후의 어린이가 나와 스타 부모와 꼭 닮은 외모나 끼를 보여주는 데서 재미를 찾았다. 하지만 '유자식 상팔자'는 주로 청소년 자녀와 중년 부모가 등장해 토크 대결을 펼친다. 특히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와 갱년기에 들어선 부모 사이에 흔한 갈등 소재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평가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김현중 '히즈 해빗' 선공개

가수 김현중(사진)이 네 번째 미니 앨범 '타이밍' 발매에 앞서 4일 '히즈 해빗'을 선공개 한다.

'히즈 해빗'은 파 이스트 무브먼트의 키보드 플레이어 미스터 락스의 곡으로, 가수 김예림과 칸토가 참여했다. 신선한 어반 힙합 장르다.

김현중의 소속사 측은 "매력적인 보이스와 랩으로 음악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김예림과 칸토의 '히즈 해빗' 피처링 참여로 더욱 풍부한 감성의 앨범이 완성 됐다"라면서 "신선한 조합인 만큼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지난 해 7월 '라운드 3' 이후 1년 만에 가수로 돌아오는 김현중의 새 앨범은 다양한 시도가 더해진 완성도 높은 음악들로 채워진 특별한 앨범이 될 전망이다. 김현중의 신보 '타이밍'에는 밴드 사운드가 돋보이는 업템포 댄스곡 '뷰티뷰티'와 '히즈 해빗'을 포함, 다양한 장르 4곡이 수록된다.

한편 지난 달 28일 서울 콘서트를 시작으로 7개국 11개 도시 '2014 김현중 월드투어: 몽환'을 진행 중인 김현중은 오는 11일 공식 컴백한다. /양성운기자 ysw@

속 시원한 안방 여주인공

고아라·강소라·정은지·남상미
솔직한 감정 표출·현실감 부여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의 감정 표현이 진화했다. 속으로 삼키는 게 일반적이던 과거와 다르다. 고아라, 강소라, 정은지, 남상미(사진 왼쪽부터)는 가감 없는 감정 표출로 캐릭터에 현실감을 부여하고 있다.

고아라는 SBS 수목극 '너희들은 포위됐다'에서 신입 경찰 어수선 역을 맡았다. 학창시절 가수를 꿈꾸며 동네 싸움짱이던 그는 굉장히 활발하다. 이름처럼 어수선할 정도지만 극 초반, 동료인 은대구(이승기)가 마음을 열지 않자 적극적으로 섭섭한 점을 말하며 그를 설득했다. 네 명의 신입 경찰이 협동해 매회 사건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SBS 월화극 '닥터이방인'의 강소라는 사랑에 당당하다. 티격태격하던 박훈(이종석)이 좋아진 그는 오랜 연인 한재준(박해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상담까지 한다. 박훈에게 고백한 후 거절당하지만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기 위해 노력한다. 정의로운 일에도 당차다. 병원에서 행패부리는 조폭의 뺨을 때리거나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이복 오빠 오상진(강태환)에겐 "나 오수현이다"며 멱살을 잡는다. 차분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송재희(진세연)와 대비돼 극의 균형을 맞춘다.

정은지는 KBS2 월화극 '트로트의 연인'에서 생활력 있는 소녀가장 최춘희로 분했다. 전형적인 캔디 캐릭터가 아니다. 장준현(지현우)의 욕심으로 클럽과 노래방에 팔려간 그는 외롭고 슬퍼서 우는 현실적인 인물이다. 미안함에 최춘희를 찾으러 온 장준현을 때리거나 술자리 아자타임에 기획사 대표에게 "낙하산 사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솔직하다. 이 같은 인물의 성격은 서민의 상징인 트로트와 부합해 극의 친근함을 더한다.

KBS2 수목극 '조선총잡이'의 남상미는 사극에서 보기 드문 당찬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다. 그가 맡은 정수인 역은 개화기 총, 나침반 등 신 문물에 관심이 많다. 선비로 위장해 총을 품고 다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정략 결혼 상대자인 박윤강(이준기)에게 면전에서 핀잔을 주기도 한다. 솔직함은 말투에서 비롯된다. 정통 사극투가 아니다. 남상미는 제작발표회에서 "처음 사극에 출연하지만 말투가 현대적이어서 편하다"며 "정수인의 진취적인 성격을 보이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효진기자 jeonhj89@

'몽유도원도' 속을 거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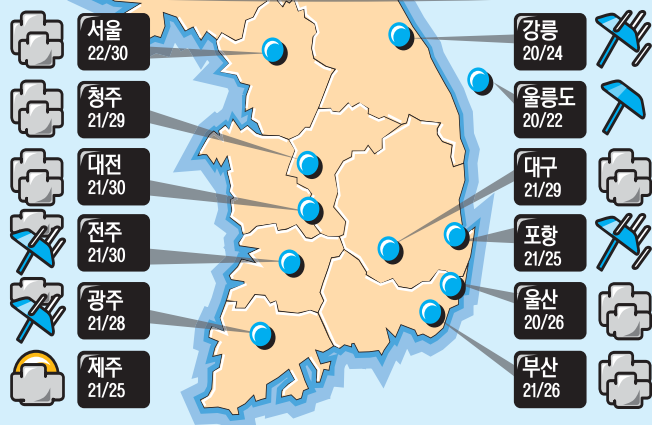
권기봉의 **도시산책** <86>

부암동을 걷다 보면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자연이 살아 있는 걸 느낄 수 있다. 창의문 같은 운치있는 조선시대 문화재를 비롯해 백사실 등 깊은 산 속에서나 만날 수 있는 계곡이 온전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처럼 신록이 푸르게 물들면 마치 조선시대의 산수화 속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서울 사대문 안팎이 막개발로 황폐해진 지금도 그 정도의 느낌을 받을 정도인데 과연 조선시대에는 어땠을까?

지금으로부터 567년 전 화원 안견이 '몽유도원도'를 완성해낼 때 배경으로 삼은 곳이 바로 부암동 남서쪽의 무계동 계곡이었다. 세종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으로부터 자신이 꿈 속에서 노닐던 무릉도원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달라는 명을 받은 뒤 단 사흘 만에 완성해 낸 건데, 섬세한 붓놀림과 파격적인 구도 면에서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에 필적한다는 평을 받는다.

요즘에도 직접 부암동을 찾아 무계동 계곡 쪽으로 걸어 들어가다 보면 안평대군이 살았던 집터를 만날 수 있다. 한쪽에 '무계정'이라고 새긴 바위도 남아 있는데 당시의 모습을 어렴풋하게 나마 그려볼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이런 부암동의 고즈넉한 풍광이 저스스로 유지되어 온 것은 아니다. '청와대 경호'라는 군사적인 목적에 개발이 지연된 탓도 있지만 주민들의 노력도 큰 몫을 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지난 2009년, 안평대군 집터 근처에 1700여 제곱미터 면적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했던 적이 있다. 이때 주민들이 "주차장이 부족해 당장은 불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역사적이며 문화적인 면에서 그곳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안 된다"고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신성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역사와 문화 경관을 위해 당장의 편리함을 유보하는 태도는 사뭇 신선하게 다가온다. 몽유도원도 원본은 일본에 있어 직접 보기 힘들지만 이번 주말 대신 부암동을 찾아 실제의 몽유도원도 속을 걸어 보는 건 어떨까. 안평대군 꿈 속의 무릉도원은 멀리 있지 않다. /'다시, 서울을 걷다' 저자

담배, 술, 과로 등은 간경화와 간암을 일으킵니다. 과도한 일의 양을 줄이고, 적절한 휴식과 수면으로 스트레스를 조절하면서 금연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70년생 동갑 재혼인데 궁합 어떤지요…
가정적이지 못해 현명한 지혜 필요

Q 온리포유 여자 70년 10월 21일 음력 오후 9시 20분
남자 70년 12월 10일 음력 오후 5시30분

안녕하세요. 여자 70년 음력 10월21일 오후 9시 20분입니다. 남자는 70년 음력12월 10일 오후 5시 30분생입니다. 궁합 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사주 속으로 애독자로서 너무 답답해 선생님께 궁합 좀 부탁드리려고요. 재혼인데 궁합이 맞을까요? 남자의 사업 운이나 건강운도 부탁드립니다.

A 궁합으로는 무난합니다. 그러나 명리(命理)로 풀이를 해본다면 토사구팽(兎死狗烹)의 상황을 대변합니다. 묘날(卯日)에 태어난 1970년 개띠 생(庚戌生)인데 다시 술년(戌年)이 올 때 는 곧 무덤이 되고 술(戌)도 묘(卯)를 합(合)한 다음에는 욕패(慾敗)하기 마련입니다. 돌아오는 술년(戌年)은 2018년입니다. 어려운 얘기 같아 쉽게 다시 얘기해본다면 2018년 까지 가기 전에 귀하 마음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궁합이 잘 맞거나 무난하다고 이혼, 사별 을 면하고 잘사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결혼 생활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반쪽을 만나 하나를 이루는 것이므로 한쪽이 강하면 다른 한편이 부드러워야 하겠지요. 귀하는 '초목이 물을 만난 격'으로 운기가 화창합니다. 영리하고 인심이 두터운데 드물게 예리한 용기가 발동하면 사납게 돌변하는데 이런 때 다시 헤어지게 되지요. 음식 솜씨가 좋고 나이 많은 남자와 인연이 있습니다. 생일지에 천을귀인(天乙貴人:하늘의 귀인이 도움을 주는 길명)으로 어려운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길명이긴 합니다만 관(官:남자를 의미하는 오행)이 공망(空亡:빌공, 망할망)과 도화 살로 이성의 유혹이 있으며 남편 덕은 없으므로 당분간은 연을 맺지 않음이 어떨지요.

헤어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인 사주에서 가정을 갖고자하는 노력은 있겠으나 운세에서 가정적이지를 못함이 펼쳐져 2017년까지는 스스로 불편해지게 될 것입니다. 남자분은 현재 가진것이 없다할지라도 착실히 재물을 모으게 됩니다. 서로에 대한 끈이 얽히고설키어 헤어지고 싶어도 쉽게 헤어지지 못하는 궁합 현명한 지혜를 갖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6	4			1	3		
		7						
	9			2	7	6		4
			1		9			5
				6				
1			7		4			
9		3	8	1			5	
						9		
		6	5			7	1	3

1		7						
						4		
3	6	9	7			5	8	
7		6	5					
	3		1		4		9	
					3	2		5
	7	4			8	3	2	6
		3						
						9		7

스도쿠 정답

8	6	4	9	5	1	3	2	7
3	2	7	6	4	8	5	9	1
5	9	1	3	2	7	6	8	4
6	4	2	1	3	9	8	7	5
7	3	8	2	6	5	1	4	9
1	5	9	7	8	4	2	3	6
9	7	3	8	1	6	4	5	2
2	1	5	4	7	3	9	6	8
4	8	6	5	9	2	7	1	3

1	4	7	2	8	5	6	3	9
8	5	2	3	9	6	4	7	1
3	6	9	7	4	1	5	8	2
7	8	6	5	2	9	1	4	3
2	3	5	1	6	4	7	9	8
4	9	1	8	7	3	2	6	5
5	7	4	9	1	8	3	2	6
9	2	3	6	5	7	8	1	4
6	1	8	4	3	2	9	5	7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신점[神占] 운세 7월 4일 (음 6월 8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부부간 대화에 정은 깊어진다. **60년생** 남의 일로 분주한 하루~. **72년생** 기분에 따라 행동하면 큰 오점 남긴다. **84년생** 운기가 좋은 꿈을 더 키워라.

49년생 항상 좋을 수만 없는 법~. **61년생** 계획은 원대하나 돈이 문제다. **73년생** 구설수 따르니 술좌석서 말조심할 것. **85년생** 바라던 일은 성사가 된다.

50년생 중용을 지키는 게 무난하다. **62년생** 우유부단한 처신이 이로운 날~. **74년생** 무리한 부탁은 거절하는 게 좋다. **86년생** 생각도 못한 웃을 일이 생기니 기대하라.

51년생 과음으로 인한 실수 조심~. **63년생** 실수의 후폭풍서 벗어난다. **75년생** 회사일이 힘들어도 못한 다는 말부터 하지 말라. **87년생** 나답게 사는 용기 필요하다.

52년생 실속보단 체면이 우선이다. **64년생** 침묵하는 사람 눈여겨보라. **76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88년생** 큰일을 하면 반응 엇갈리니 신경 쓰지 말라.

53년생 걱정한 일이 풀려 야호~. **65년생** 불청객 등쌀에 한숨만 는다. **77년생** 과한 선물은 양날의 칼이 되니 조심할 것. **89년생** 잃어버린 주도권 되찾는다.

42년생 칭찬은 복으로 돌아온다. **54년생** 자녀 바라보는 속내가 복잡하구나. **66년생** 기다리던 소식은 듣는다. **78년생** 스텝이 꼬인 일은 백지상태서 다시 짜라.

43년생 교통사고 등 안전에 조심~. **55년생** 실언하면 발목 잡힌다. **67년생** 가족에 상처 주는 말을 않도록 신경 써라. **79년생** 직장인은 어깨 힘 줄 일이 생긴다.

44년생 자녀가 찾아와 즐겁다. **56년생** 헛소문 내며 저항하는 사람은 무시할 것. **68년생** 결과 뻔해도 정도는 지켜야 한다. **80년생** 친구가 장에 간다고 따라가지 말라.

45년생 돈으로 인한 부부간 충돌은 피하라. **57년생** 두 갈래 길서 고민에 빠진다. **69년생** 뜻을 이루려면 눈높이를 더 낮춰라. **81년생** 가슴 설레게 하는 이성 만난다.

46년생 자녀 일은 인내심 필요하다. **58년생** 분산 투자로 추가 이익 노려라. **70년생** 선심을 서도 진실성 없으면 외면 받는다. **82년생** 뜻대로 일이 성사되어 야호~.

47년생 남의 일에 참견 말라. **59년생** 욕심 부리면 애로사항만 늘어난다. **71년생** 타인의 도움도 생각해 가며 받아들여라. **83년생** 남의 말 함부로 하면 후폭풍 크다.

metro worldcup

홍명보 감독 유임 '약일까 독일까'

국민 신뢰 잃고 힘든 여정 시작 54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 도전

홍명보 감독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서 부진한 성적을 낸 홍명보호가 새로운 항해를 시작한다. 경질·사퇴론에 휘말렸던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내년 1월 열리는 2015 AFC 아시안컵까지 지휘봉을 잡는다.

그러나 브라질 월드컵에서 1998년 프랑스 대회 이후 16년 만에 최악의 성적(1무2패)을 거둔 홍 감독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대표팀 사령탑에 대한 축구 팬들의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홍 감독은 앞으로 이어지는 평가전 성적에 따라 또다시 '자질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여기에 새롭게 대표팀을 구성하더라도 이번 월드컵에서 불거진 '의리 논란'의 꼬리표도 발목을 잡을 것이다.

결국 홍 감독은 팬들의 신뢰를 쌓기 위해 차별화된 선수 기용과 전술을 통해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아시안컵의 성적에 따라 홍 감독의 '자질 논란'은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홍 감독은 아시안컵에서 명예회복을 노려야 하지만 호재보다 악재가 더 많다. 한국은 역대 아시안컵에서 두 차례(1956년·1960년) 우승했지만 마지막 정상에 오른 게 무려 54년 전이다.

1988년 아시안컵에서 준우승한 이후 지금까지 3위 이상의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월드컵에만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아시안컵에 소홀했던 게 부진한 성적의 원인이었다.

아시안컵에서 우승하면 국제축구연맹(FIFA) 콘페더레이션스컵 출전권이 주어진다. 월드컵 1년 전에 열리는 콘페더레이션스컵은 각 대륙컵 우승팀들이 출전하는 만큼 대표팀의 실력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자리다.

이 때문에 축구협회도 2000년대 들어 아시안컵에 많은 신경을 써왔지만 일본과 중동 국가에 밀려 눈에 띄는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더구나 2011년 대회부터 1월로 대회 기간이 바뀌면서 대표팀으로서는 선수 선발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1월은 시즌을 마친 K리그 팀들이 전지훈련을 시작하는 때다. 선수들의 컨디션이 바닥을 칠 시기다. 하지만 '영원한 라이벌' 일본도 상황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선수 컨디션을 문제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아시안컵이 FIFA에 등록된 대회여서 해외파 선수를 차출할 수 있지만 월드컵과 달리 대회 직전 부를 수밖에 없어 탄탄한 조직력을 꾸리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표팀은 오는 9~11월 사이에 총 6차례의 A매치를 치를 수 있고, 이 가운데 3~4차례의 평가전을 치른다는 계획이다.

올해 A매치를 통해 대표팀이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8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브라질 월드컵 참패로 팬들에게 신뢰를 잃은 홍 감독이 어떤 카드를 활용해 한국 축구를 이끌지 관심이 집중된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차두리 "98년에는 왜…"

감독 유임 협회 결정에 반발 글 올려

차두리(34·FC서울)가 홍명보 감독을 유임시킨 대한축구협회 결정에 반발하는 듯한 글을 올려 화제다.

차두리는 3일 자신의 트위터에 "98년에는 왜....??? 혼자서..."라는 글을 게재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본선에서 한국의 사령탑을 맡았던 부친인 차범근 감독이 현지에서 경질된 것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대한축구협회가 이날 브라질 월드컵에서 16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낸 홍명보 감독을 유임시킨 것에 대한 반감으로 해석된다. 차두리는 과거 인터뷰에서 차 감독이 참패의 모든 책임을 떠안고 경질돼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다.

차범근 감독은 1998년 월드컵에서 멕시코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선제골을 넣은 하석주가 백태클로 퇴장 당하며 1-3 역전패를 당했다. 2차전에서 네덜란드에 0-5로 완패하자 협회는 대회 출전 중인 차 감독을 즉각 경질했다.

그러나 협회는 비슷한 성적표를 받은 홍명보 감독에 대해 선수로서 월드컵 본선, 지도자로서 청소년 월드컵과 올림픽에서 쌓은 업적을 고려해 유임을 결정했다고 설명해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협회는 감독 자신이 졸전을 뼈아프게 느끼고 경험으로 삼을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유순호기자 suno@

차두리·차범근 부자 /SBS

섹스 금지령 국가 모두 탈락

월드컵 이모저모

브라질 월드컵 축구 대회에서 선수단에 성 관계를 금지했던 국가들이 모두 탈락했다.

영국 신문 데일리 메일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선수단에 섹스 금지령을 내렸던 나라들은 하나도 8강에 오르지 못했다"고 3일 보도했다. 운동선수의 경기력과 섹스의 상관관계는 큰 대회를 앞두고 단골로 거론되는 논쟁거리다.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도 브라질, 독일, 네덜란드, 코스타리카 등은 선수단에 자유로운 성 관계를 허용한 반면 러시아, 멕시코, 보스니아 등은 성관계 금지령을 내려 대조를 보였다. 8강 국가 가운데 프랑스와 브라질, 코스타리카는 독일이나 네덜란드처럼 '전면 허용'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선수단에 자율성을 부여한 나라들이다. 반면 '섹스 금지령'을 철저히 고수한 스페인, 러시아, 보스니아는 조별리그 탈락의 쓴잔을 들어 '인고의 시간'을 보낸 보람을 찾지 못했다.

콜롬비아 팬들이 자국의 경기를 보며 열광하고 있다. /AP연합

◆ 티켓 불법 판매 적발

브라질 경찰이 월드컵 티켓을 불법으로 판매한 조직원 11명을 적발해 체포했다. 아일랜드 방송 RTE는 2일 인터넷판을 통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9명, 상파울루에서 2명이 월드컵 티켓을 불법으로 판매하다 붙잡혔다. 이들은 같은 조직에서 활동했다"고 전했다. 브라질 경찰은 1일 변호사와 전 브라질 경찰 등으로 구성된 월드컵 티켓 불법 판매 조직을 검거했다.

이 조직은 각국 대표팀 관계자와 월드컵 후원 업체, 인권·환경 관련 비정부기구(NGO)에 할당된 티켓을 확보해 일반 티켓의 3배에서 20배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직은 500장 이상의 불법 티켓을 판매해 100만 헤알(약 4억5800만 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 경기날 밀가루 판매금지

'열정적인 응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콜롬비아 축구 팬들이 8강전 당일 구매할 수 없는 품목이 등록됐다.

콜롬비아는 브라질과 2014 브라질 월드컵 축구대회 8강이 벌어지는 4일(현지시간) 수도 보고타에서 밀가루와 면도용 거품 판매를 금지한다. 콜롬비아에서는 경기 결과에 도취된 팬들이 면도 거품을 뿌려대거나 밀가루 폭탄을 만들어 축하하다가 폭력사태까지 번지는 일이 종종 벌어졌다. 경찰은 아울러 술 판매도 금지하기로 했다. 콜롬비아 대표팀이 지난달 28일 우루과이와의 16강전에서 이긴 후 콜롬비아에서는 3200여건의 싸움이 경찰에 접수됐고 34명이 부상했다.

/양성운기자

10승 태운 윌슨… 속타는 류현진

구원이 또 '불쇼'… 7이닝 2실점 승리 요건 날려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잘 던지고 잘 쳤지만 다잡은 10승을 날려보냈다.

류현진은 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경기에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홈런 하나를 포함해 7안타를 내줬지만 사4구 없이 삼진을 8개나 잡고 2실점으로 호투했다. 2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으로 타자로서도 만점 활약을 보였다.

승리 요건을 갖추고 3-2로 앞선 7회말 타석 때 야시엘 푸이그와 교체됐다. 그러나 뒤 이어 등판한 브라이언 윌슨이 역전을 허용하며 류현진의 승리를 날렸고, 다저스는 4-5로 역전패 당했다.

윌슨은 올 시즌에만 벌써 두 차례 류현진의 승리를 날려 국내 팬들에게 '특급 민폐' 선수로 눈총을 받게 됐다. 류현진은 3월 31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서 7이닝 3피안타 3볼넷 무실점으로 호투하고 윌슨에게 마운드를 물려줬지만, 윌슨은 1-0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첫 타자인 세스 스미스에게 홈런을 맞았다.

5월 27일 신시내티 레즈전에서는 8회 1사 1·2루에서 등판해 볼넷을 내준 뒤 빌리 해밀턴에게 2루타를 맞고 2실점해 류현진의 평균자책점을 한껏 높여놓았다.

윌슨의 '불쇼'로 승리를 날린 류현진은 올 시즌 16경기에 나와 9승 4패, 평균자책점 3.08의 성적을 유지했다. 이날 101개의 공을 던졌고, 최고 구속은 시속 93마일(약 150㎞)였다.

류현진은 주전들이 대거 결장하고 동료의 실책이 잇따른 가운데 빼어난 위기 관리 능력을 보였다. 다저스는 이날 부상에서 회복하지 않은 유격수 핸리 라미레스를 비롯해 1루수 애드리언 곤살레스, 우익수 야시엘 푸이그, 3루수 후안 우리베 등 주력 선수들을 대거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했다.

류현진은 1회 유격수 카를로스 트리운펠의 실책으로 1사 1·3루의 위기를 맞았지만 두 타자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위기를 벗어났다. 2회에도 트리운펠의 실책성 플레이로 위기를 맞았지만 삼진으로 헤쳐 나갔다.

3회초를 삼자범퇴로 넘긴 류현진은 3회말 1사 후 타석에 나와 중전 안타를 뽑아냈다. 동료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외롭게 분전하던 류현진은 결국 4회 투런 홈런을 맞고 선취점을 내줬다.

5회말 2사 1루에서 방망이를 잡은 류현진은 1타점 2루타를 때렸고, 앤드리 이시어의 중전 안타 때 홈을 밟았다. 3-2로 역전하자 류현진은 마운드에서 더욱 힘을 냈다. 6회 1사 후 세 타자를 연속 범타 처리했고, 7회에도 삼진 하나를 포함해 삼자 범퇴로 이닝을 끝냈다.

윌슨이 3실점하고 마운드를 J. P. 하월에게 넘겼고, 다저스는 8회말 반 슬라이크의 솔로 홈런으로 1점만을 따라붙는데 그쳤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류현진이 동료의 연이은 실책으로 경기가 잘 풀리지 않자 입을 닦으며 답답해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브라이언 윌슨(가운데 오른쪽)이 류현진의 승리를 날리고 8회 아웃카운트 하나만을 잡은 채 강판되고 있다. /AP 연합뉴스

박효준 메이저리그 양키스 입단

박찬호 이어 두 번째 한국 선수… '제2의 데릭 지터' 목표

특급 유격수 박효준(19·야탑고 우투좌타)이 미국 프로야구 명문 뉴욕 양키스와 입단계약을 했다.

박효준은 3일 오전 양키스 구단 관계자와 만나 계약서에 사인했다. 양키스는 박효준에게 계약금 116만 달러(약 11억6900만원)를 안기며 통역과 트레이너, 숙박을 지원한다. 이는 미국 내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후반에서 2라운드에 뽑힌 '상위 랭커'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박효준은 한국 아마추어 선수 신분으로 미국으로 진출한 선수 중 김병현(225만 달러)·류제국(160만 달러)·추신수(137만 달러)·서재응(135만 달러)·백차승(129만 달러)·김선우(125만 달러) 등에 이어 12번째로 많은 계약금을 받았다.

박효준은 박찬호(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양키스와 계약한 한국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평소 양키스의 간판 스타이자 주전 유격수 출신인 데릭 지터의 활동 모습을 연구하며 기량을 발전시켜 왔다.

박효준의 양키스행은 올 초부터 예고됐다. 박효준은 야탑고 동료와 함께 지난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전지훈련을 했고, 복수의 미국 스카우트가 박효준의 훈련 모습을 지켜봤다. 몇몇 메이저리그 구단이 적극적으로 박효준에게 접근했고 2015 신인 지명 우선 지명권을 지닌 KT 위즈와 연고 구단 SK 와이번스가 마지막까지 박효준 영입을 타진했다.

그러나 박효준은 미국 타 구단과 국내 구단의 영입 제의를 정중히 거절하며 양키스행을 고수해왔다.

양키스와 입단 계약한 박효준 /연합뉴스

결국 미국 메이저리그 규정에 따라 박효준과 양키스는 7월 2일(현지시간) 계약을 결정했다.

한편 박효준은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로부터 타력 60점, 장타력 45점, 주력 60점, 송구력 55점, 수비력 60점(각 부문 최고 80점·최저 20점)의 고른 점수를 받으며 외국인 유망주에 이름을 올렸다. 양키스는 곧 한국에서 박효준의 입단식을 열 예정이다.

/양성운기자 ysw@

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배우 현빈과 김영수 조직위원장이 스마트토치 릴레이 성화봉송 후 스마트폰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지킨 해병대원 현빈 아시안게임 홍보대사에

배우 현빈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홍보대사에 위촉됐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현빈의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대회 조직위는 "역대 가장 재미있고 감동적인 아시안게임을 목표로 하는 이번 대회를 아시아인 모두에게 알리고자 한류 스타의 흐름을 주도하는 현빈을 홍보대사에 위촉했다"고 밝혔다.

현빈은 "해병대에 자원입대할 때 서해 최북단인 인천시 백령도에서 첫 복무를 시작해 인천과 인연을 맺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지민기자 langkim@

프로야구 전적 3일

■잠실

팀	1-3	4-6	7-9	계
한화	000	002	200	4
L G	111	000	02X	5

△ 승=이동현(2승 1패) △ 세=봉중근(3패 15세이브)△ 패=안영명(1승 5패 1세이브) △홈런=박용택 5호(1회1점·LG) 정근우 5호(7회2점·한화)

■목동

팀	1-3	4-6	7-9	계
롯데	431	000	100	9
넥센	500	040	01X	10

△ 승=손승락(2승 3패 19세이브) △패= 강영식(3패) △ 홈런=손아섭 8호(2회3점) 신본기 3호(3회1점·이상 롯데)

■광주

팀	1-3	4-6	7-9	계
두산	000	200	001	3
KIA	200	031	00X	6

△ 승=양현종(10승 4패) △ 패=유희관(7승 5패) △ 홈런=최재훈 1호(4회2점) 정수빈 3호(9회1점·이상 두산) 안치홍 11호(5회3점) 김주찬 4호(6회1점·이상 KIA)

■마산

팀	1-3	4-6	7-9	계
S K	201	100	210	7
N C	000	263	00X	11

△ 승=이민호(2승 2패) △ 패= 울프(1승 2패) △ 홈런 = 모창민 11호(6회3점·NC)·이재원 9호(7회2점·SK)

tvN
tvN 금토드라마
연애 말고 결혼
남 일인 듯 남 일 아닌
밀당 전문 로맨스
오늘 저녁 8시 40분 tvN 첫 방송 / 매주 [금,토] 방송